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홍 용 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프랑스어의 문체 도치  
(Inversion Stylistique en Français)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장 소 영

# 프랑스어의 문체 도치

(Inversion Stylistique en Français)

홍 용 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장 소 영

# 인 준 서

장소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프랑스어의 기본 어순은 주어-동사-목적어이다. 그런데 의문문, 감탄문, 접속법 등에서 이 기본 어순이 뒤바뀌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기본 어순이 뒤바뀌는 현상 중 주어가 동사 뒤에 나타나는 현상을 주어·동사 도치라 한다.

프랑스어에서 나타나는 주어·동사 도치 현상들 중에는 대명사인 주어가 동사 뒤에 위치하는 어순을 가진 단순 도치 구문, 명사구인 주어는 정상적인 위치에 있고 그에 상응하는 대명사가 동사 뒤에 출현하는 복합 도치 구문, 명사구인 주어가 절 뒤에 위치하는 문체 도치 구문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프랑스어의 도치 현상들 중 문체 도치 구문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문체 도치 현상들에 대한 최근 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이론적 쟁점들을 드러내고 문제점들을 제기한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선 문체 도치 현상이 다른 두 도치 현상들과 구별하여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그 차이점들 살펴본다. 그리고 프랑스어에서 문체 도치 현상이 나타나는 여러 구문들을 정리한다. 또한 문체 도치 현상이 제기하는 이론적인 쟁점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문체 도치에 관련된 이론적인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1) 문체 도치 현상이 제기하는 이론적 쟁점들

- a. 문체 도치 구문에서 EPP는 어떻게 만족되는가?
- b. 왜 프랑스어의 문체 도치는 다른 로맨스어와 비교했을 때 보다 제약적인가?

- c. 문체 도치 구문의 도치 주어는 구조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가? 도치 주어는 기저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가? 이동했다면, 그 위치는 어디이고, 이동의 이유는 무엇인가?

3장에서는 이 쟁점들을 중심으로 문체 도치 현상을 다룬 대표적인 선행 연구들인 Kayne & Pollock(1978), Kayne & Pollock(2001), Poletto & Pollock(2004)를 검토한다. Kayne & Pollock(1978)에서는 문체 도치가 qu-환경과 접속법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처음에는 다음 규칙을 제안한다.

$$(2) \text{qu-/+F (que) NP X} \rightarrow 1 \ 2 \ e \ 4 \ 3$$

$$1 \quad 2 \quad 3 \ 4$$

위에서 화살표의 왼쪽은 문체 도치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문체 도치가 적용된 구문을 나타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문체 도치 구문과 il 부재 비인칭 구문의 출현 환경이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한 후 이 점을 포착하기 위해 문체 도치 규칙과 이 규칙이 적용된 결과에 대한 제약을 서로 독립된 사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문체 도치 규칙: NP 이동

$$\text{NP X} \rightarrow e \ 2 \ 1$$

$$1 \ 2$$

- (4) 문체 도치 규칙 적용 결과에 대한 제약: 촉발자 제약(trigger restriction)  
공주어가 촉발자 qu-/+F의 바로 다음에 있지 않는 문장을 비문법적으로 표시하라.

Kayne & Pollock (2001)에서는 문체 도치 구문에서의 도치 주어가 문장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다. 이 문제에 대해 Kayne & Pollock(2001)은 도치 주어가 IP를 지나 좌측 인상을 한 후, 남은 IP가 나머지 이동을 통하여 주어의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즉, 문체 도치 구문의 주어가 구조적으로 IP 밖에 위치한다고 본다. 그리고 Kayne & Pollock(1978)의 촉발자 제약 대신 “문체 도치의 주어 인상은 IP 바로 위의 Spec-FP를 목표로 할 수 없다.”는 조건을 설정한다. Kayne & Pollock(2001)에 의하면 qu- 환경과 접속법에서 문체 도치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조건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Poletto & Pollock(2004)는 Kayne & Pollock(2001)에서 문체 도치 구문의 도출을 위해 제안된 여러 가지 이동들의 도착 지점과 이동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Poletto & Pollock(2004)는 우선 다음과 같은 문장 외곽 구조를 제안한다.

#### (5) 문장 외곽 구조

[Op2P Op2 [ForceP Force [GroundP Ground [TopicP Topic [Op1P Op1 IP]]]]

이 논문에서는 각 요소들의 이동 이유를 점검이론으로 설명한다. 가장 먼저 IP와 Op1P가 병합된 후, qu-는 Op1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 그리고 주제(topic)의 해석을 받는 주어가 [+topic] 점검을 위해 TopicP의 지정어 위치로 유인된다. 그 후 배경, 즉 전제 정보를 지니는 나머지 IP는 [+ground]를 점검하기 위해 Ground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 그리고 문장 유형을 결정짓는 Force 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qu-가 Force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의문사와 관련된 또 다른 자질 점검을 위해 qu-가 Op2P의 지정어 위치로 다시 한 번 이동한다. 결국 이 논문은 문체 도치 구문의 도출을 위해 “Op1P로 1차 의문사 이동 ⇒ TopP로 주어 이동 ⇒ GroundP로

IP 나머지 이동 ⇒ ForceP로 2차 의문사 이동 ⇒ Op2P로 3차 의문사 이동”이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한다.

4.1.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Kayne & Pollock(1978)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체 도치 현상을 기술하고 있을 뿐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촉발자 제약”을 통해 문체 도치의 촉발자가 qu-와 접속법의 보문소 +F라는 점을 포착한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으며 따라서 왜 이들이 촉발자로 설정되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점을 Kayne & Pollock(2001)에서는 “문체 도치의 주어 인상은 IP 바로 위의 Spec-FP를 목표로 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이는 문체 도치 현상이 왜 의문사 의문문과 접속법에서 일어나는지를 이 두 구문의 공통점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체 도치 현상 연구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치 주어의 구조적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또한 설득력이 매우 강하다. 이와 같은 많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또 다른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동과 관련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문체 도치 구문을 도출하기 위해 ‘1차 의문사 이동⇒주어인상⇒나머지 IP 이동⇒2차 의문사 이동’이라는 4개의 IP 밖으로의 이동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IP 앞에 4개의 위치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 위치들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게다가 왜 이렇게 이동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동에 관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Poletto & Pollock(2004)은 앞에서 언급한 문장 외곽 구조와 자질 점검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즉, 문체 도치 구문의 도출을 위해 필요한 이동들은 문장 외곽에 생성된 요소의 관련 자질을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이 주장은 그 동안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장 외곽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있어서 문체 도치 구

문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의문사 의문문의 문체 도치만을 다룰 뿐 접속법과 같은 다른 구문들에서의 문체 도치는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시된 외곽 구조와 자질 점검 이론을 통하여 이들 구문에서의 문체 도치 현상이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가가 남겨진 숙제라고 할 수 있다.

4.2.장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기존 연구가 다루지 않았던, 문체 도치 현상이 나타나는 다른 구문들을 분석한다. 즉, 상황보어가 문두에 출현하는 구문, 속사가 출현하는 구문, 분열문, 삼입절에서 나타나는 문체 도치 현상을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접근 방법으로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5장은 논문 전반에 대한 결론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1. 서론 .....	1
2. 문체 도치 현상 .....	3
2.1. 프랑스어에서의 도치 현상 :	
단순 도치, 복합 도치, 문체 도치 .....	3
2.2. 문체 도치와 다른 도치들의 차이점 .....	5
2.3. 문체 도치 구문들 .....	7
2.3.1. qu- 출현 구문 .....	7
2.3.2. 그 외 구문들 .....	10
2.4. 문체 도치에 대한 이론적인 쟁점 .....	12
3. 기존 연구 .....	17
3.1. Kayne & Pollock(1978) .....	17
3.1.1. 연속 순환성(successive cyclicity)과 문체 도치 .....	18
3.1.2. il 부재 비인칭 구문과 문체 도치 구문 .....	22
3.1.3. 결론 및 문제점 .....	27
3.2. Kayne & Pollock(2001) .....	29
3.2.1. 주어 위치 .....	30

3.2.2. 직설법과 접속법 .....	38
3.2.3. EPP .....	42
3.2.4. 문체 도치의 허용 조건 .....	45
3.2.5. 문체 도치 구문의 주어 뒤에 출현하는 보충어 .....	49
3.2.6. 결론 및 문제점 .....	53
3.3. Poltetto & Pollock(2004) .....	57
3.3.1. 확장된 CP 영역 .....	58
3.3.2. GroundP와 IP 나머지 이동 .....	61
3.3.3. 결론 및 문제점 .....	64
4. 문제점 및 해결안 .....	66
4.1. 선행 연구들의 문제점 및 해결안 .....	66
4.2. 선행 연구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문체 도치 구문에 대한 분석 시도 .....	71
5. 요약 및 결론 .....	77
참고문헌	
Résumé	

## 1. 서론

어느 나라 언어이든 언어 표현에 있어서 기본 어순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어는 주어-동사-목적어의 기본 어순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언어인데, 우리는 이런 기본 어순을 지키지 않는 문장들을 의문문이나 감탄문, 접속법 등 여러 구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 어순이 뒤바뀌는 현상 중 주어가 동사 뒤에 위치하는 현상을 통상적으로 주어·동사 도치라고 한다.

프랑스어의 주어·동사 도치 구문들 중에는 명사구인 주어가 조동사와 본동사로 구성된 동사 복합체 전체와 도치되는 구문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문체 도치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체 도치 현상들에 대한 최근 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문체 도치 현상에서 주 이론적 쟁점들이 무엇이고 이 쟁점들에 대한 해결안 또는 접근 방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본 논문의 목적, 즉 선행 연구들을 통한 프랑스어의 문체 도치 현상 분석, 현상들 점검,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형식을 취하고 있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프랑스어에서 나타나는 문체 도치 현상들과 이 현상이 발생하는 환경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특히 *qu-* 이동은 의문문과 다른 구문들에서 도치 현상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qu-*요소가 있는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으로 나누어 문체 도치 현상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프랑스어의 문체 도치와 관련된 대표적인 선행 연구들, Kayne & Pollock(1978), Kayne & Pollock(2001), Poletto & Pollock(2004)를 요약하고, 장단점들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 4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행 연

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문체 도치 구문들에 대해 어떤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모색할 것이다.

5장은 본 논문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이다.

## 2. 문체 도치 현상

### 2.1. 프랑스어에서의 도치 현상 : 단순 도치, 복합 도치, 문체 도치

프랑스어에는 일반적으로 단순 도치, 복합 도치, 문체 도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도치구문이 존재한다.

단순 도치란, 대명사인 주어가 어형 변화한 동사 뒤에 위치하는 어순을 가진 구문이다.

(1) a. Viendra-t-il demain?

b. Quand viendra-t-il? (D. & K. p.112)<sup>1)</sup>

단순 도치가 나타날 수 있는 구문은 제한적이다. 위의 예문과 같이 직접 의문문에서는 단순 도치가 나타날 수 있으나, 간접 의문문에서는 이 유형의 도치가 용인되지 않는다.

(2) a. \*Je ne sais pas si viendront-ils.

b. \*On se demande où va-t-il? (D. & K. p.112)

복합 도치란, 명사구인 주어는 정상적인 위치에 있고 그에 상응하는 대명사가 활용 동사 뒤에 출현하는 구문을 말한다.

---

1) 이번 장에서 사용된 예문들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약어를 사용한다.

- D. & K. : Delaveau, A., and Kerleroux, F. (1985)
- J. M. A. : Jones, M. A. (1996)
- K. R. S. : Kayne, R. S. (1973)
- Le B. R. : Le Bidois, R. (1939)
- T. R.-M. : Terry, R.-M. (1970)

- (3) a. Les femmes ont-elles vu Jean?  
 b. Où Marie veut-elle aller? (T. R.-M. p.34)

이런 복합 도치는 위에서 살펴본 단순 도치와 마찬가지로, 직접 의문문에서는 나타날 수 있지만, 간접 의문문에서는 이 유형의 도치가 용인되지 않는다.

- (4) a. \*Je ne sais pas si les enfants viendront-ils.  
 b. \*On se demande où Pierre va-t-il? (D. & K. p.112)

마지막으로 문체 도치란, 명사구인 주어가 조동사와 본동사로 구성된 동사 복합체 전체와 도치된 구문이다. 문체 도치는 앞에서 살펴본 단순 도치와 복합 도치 구문들과는 달리, 전체 의문문에서는 나타나지 못하고, 부분 의문문에서는 적용될 수 있다.

- (5) a. \*Viendra Pierre demain?  
 b. Quand reviendra le temps du lilas?  
 c. \*Je ne sais pas si viendront les enfants.  
 d. On se demande où va l'argent de l'Etat. (D. & K. p.112)

또한 문체 도치는 의문문뿐만 아니라 관계절과 감탄문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 (6) a. Les photos que fait Pierre sont superbes. (D. & K. p.112)  
 b. Quel bruit ont fait les voisins! (J. M. A. p.467)

## 2.2. 문체 도치와 다른 도치들의 차이점

R. S. Kayne (1973)은 프랑스어의 주어도치 현상을 위의 세 가지 도치 유형에 의거하지 않고, 주어의 양상에 따라 두 가지 현상으로 분류한다. 다시 말해, 주어가 인칭대명사와 관련된 단순 도치와 복합 도치는 주어접어도치로, 주어가 명사구와 관련된 문체 도치는 명사구 주어도치로 구분한다. 그는 이렇게 도치현상들을 두 가지로 설정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에서 찾고 있다.

첫째, 각각의 도치 유형들은 적용되는 문장유형들이 서로 다르다. 앞 절에서 살펴본 현상들을 정리해보면, 단순 도치와 복합 도치는 직접 의문문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반면에 문체 도치는 부분 의문문에서 적용되며, 의문문이 아닌 구문들인 관계절과 감탄문에서도 나타난다. 즉, 단순 도치와 복합 도치는 같은 유형의 구문들에만 적용되는 반면, 문체 도치는 이와 다른 구문들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7) a. Partira-t-elle?  
b. Marie partira-t-elle?  
c. \*Partira cette fille?  
d. \*Je sais très bien quand partira-t-elle.  
e. \*Je sais très bien quand Marie paritra-t-elle.  
f. Je sais très bien quand partira cette fille. (K. R. S. pp.17-18)

둘째, 도치된 대명사 주어의 위치와 명사구 주어의 위치는 같지 않다. 단순 도치와 복합 도치에서 대명사 주어는 활용 동사의 바로 오른쪽에 위치하여 항상 동사에 직접적으로 인접하게 된다. 반면에 문체 도치 구문에서 도

치된 명사구 주어의 위치는 단순하게 활용 동사와 관련지어 규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문장의 동사 복합체와의 관계에 의해 특징지을 수 있다. 따라서 문체 도치 구문의 명사구 주어는 동사 복합체와 도치되어 문장의 가장 오른쪽 끝에 위치한다.

- (8) a. Que voulait-elle acheter?  
b. \*Que voulait acheter elle?  
c. Que voulait acheter cette belle femme?  
d. \*Que voulait cette belle femme acheter? (K. R. S. pp.17-18)

셋째, 문체 도치는 단순 도치 또는 복합 도치와 달리 동사 뒤의 몇 가지 유형의 보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9) a. Quand deviendra-t-il célèbre?  
b. Quand ce comédien deviendra-t-il célèbre?  
c. \*Quand deviendra ce comédien célèbre? (K. R. S. p.11)

- (10) a. A quelle heure changera-t-elle d'avis?  
b. A quelle heure le prisonnier changera-t-il d'avis?  
c. \*A quelle heure changera cette fille d'avis? (K. R. S. p.11)

- (11) a. De quel oeil voit-t-il double?  
b. De quel oeil ton ami voit-t-il double?  
c. \*De quel oeil voit ton ami double? (K. R. S. p.11)

- (12) a. De quel droit prétend-il que tout va bien?

b. De quel droit ce charlatan prétend-il que tout va bien?

c. \*De quel droit prétend ce charlatan que tout va bien?

(K. R. S. p.11)

위의 예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9a, b)~(12a, b)처럼 단순 도치나 복합 도치에서는 주어의 오른쪽에 형용사 같은 보충어들이 출현해도 용인 가능한 문장인 반면, (9c)~(12c)처럼 문체 도치에서는 도치된 명사구 주어의 오른쪽에 특정 유형의 보어가 출현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류법에 의해 문체 도치는 단순 도치, 복합 도치와는 다른 독립적인 유형의 도치구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문체 도치 현상들을 보여주는 다양한 구문들을 살펴보겠다.

### 2.3. 문체 도치 구문들

우리는 프랑스어의 의문문, 관계절, 감탄문, 상황보어나 상황부사가 문두에 오는 구문, 속사가 문두에 오는 구문, 삽입절, 접속법, 분열문, ne-que구문 등 10여개의 구문들에서 문체 도치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qu-요소 출현의 유무를 기준으로 문체 도치 현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2.3.1. qu- 출현 구문

관계절에 qu- 이동이 개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감탄문도 역시 qu- 이동이 개입하는 구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살펴볼 문체 도치를 허용하는 구문들, 즉 직·간접 부분 의문문, 관계절, 감탄문은 모두 qu- 이동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① 의문문

도치는 주어와 동사의 정상적인 순서를 뒤바꾸는 과정을 나타내는 용어이고, qu- 이동은 qui, quand, où 등과 같은 의문사들이 문장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두 과정은 서로 독립적인 과정이지만, 함께 고려했을 때 그 특성들이 명료해지는 많은 구문들이 있어 자주 함께 논의되어진다.

의문문은 한편으로는, 주절 전체가 의문문이 되는 직접 의문문과 종속절의 문장 유형이 의문문인 간접 의문문으로 나뉠 수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문사를 포함하는 부분 의문문과 의문사가 출현하지 않는 전체 의문문의 경우로 세분할 수 있다. 의문문의 유형에 따라 문체 도치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3) \*Viendra Pierre demain? (D. & K. p.112)

(14) Où va ce jeune homme? (D. & K. p.112)

(15) \*Je ne sais pas si viendront les enfants. (D. & K. p.112)

(16) On se demande où va l'argent de l'Etat. (D. & K. p.112)

위의 예문들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 시켜 볼 수 있다.

<표-1>

의문문의 유형	문체 도치 허용 여부
직접 전체 의문문	x (13)
직접 부분 의문문	o (14)
간접 전체 의문문	x (15)
간접 부분 의문문	o (16)

위의 도식이 보여주듯이, 의문문 중에서 문체 도치가 나타날 수 있는 구문은 직접 부분 의문문과 간접 부분 의문문이다.

## ② 관계절

우리는 관계절에서도 문체 도치가 적용된 구문을 찾을 수 있다.

(17) Les photos que fait Pierre sont superbes. (D. & K. p.112)

## ③ 감탄문

위와 비슷한 유형이 감탄문에서도 관찰된다.

(18) a. Quel bruit ont fait les voisins!

b. Quelle chance a eue Pierre! (J. M. A. p.467)

예문 (18)에서 감탄문들은 문체도치 현상을 보인다. 만약 예문 (18)에 주어 접어도치를 적용하면 용인 가능한 문장이 되지만, 도출된 결과는 의문문으로 해석되지 감탄문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즉, 문체도치가 일어나면 ‘이웃들

이 얼마나 소리를 내던지!’로 해석되지만, 주어접어도치가 일어나면 ‘이웃들이 무슨 소리를 냈습니까?’라고 해석 된다.

### 2.3.2. 그 외 구문들

qu-요소의 출현이 문체도치와 많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앞서 보았다. 그러나 qu-요소가 출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도치 현상이 발생하는 몇몇 구문들이 있다.

#### ① 상황보어나 상황부사가 문두에 오는 경우

- (19) a. Enfin vient l’armée des chèvres et des moutons.  
b. Au fond du jardin est le couvent aux fenêtres ouvertes.  
(Le B. R. p.148에서 재인용)  
c. A Jean incombe la tâche de fermer la maison pour l’hiver.

#### ② 속사가 문두에 오는 경우

- (20)<sup>2)</sup> a. Grande fût sa surprise.  
b. Rares sont les véritables amis.  
c. Tels sont ses mérites.<sup>3)</sup>

2) 한국불어불문학회, 「불어학사전」, p.74.

3) tel이 속사일 경우, 명사구 주어인 경우는 속사-동사-주어 순이나,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는 속사-주어-동사 순이 되는 경우가 많다.

i) Tel il était. ii) Tel il demeure. (Oscar Bloch Walther Von Wartburg, 1973, "Précis de syntaxe du français contemporain", *French & European Pubns*, p. 159.)

이것도 문체 도치와 단순·복합 도치를 구분해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③ 삽입절<sup>4)</sup>

- (21) a. 《L'argent, disait ma mère, ne fait pas le bonheur》  
b. 《Voyagerons-nous en avion ou en bateau?》 demande Pierre.  
(J. M. A. p.471)

④ 접속법

- (22) a. Il faut que parte Jean. (Kayne & Pollock(2001;120))  
b. Je souhaiterais que téléphone ton ami.  
(Kayne & Pollock(2001;108))

⑤ 분열문

분열문이란, 문장의 한 요소를 강조하는 방식들 중 하나로, 강조되는 요소가 C'est ... que의 ...에 오는 구문을 뜻한다. que에 의해 도입되는 절에서 문체 도치가 가능하다.

- (23) a. C'est mon stylo que Luc a volé.

---

4) 삽입절에서 주어는 명사이건 대명사이건 간에 모두 엄격히 도치된다. 이 때 특이한 점은 주어 접어도치 중 단순 도치만 가능하고, 복합 도치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리하자면, 삽입절에서는 단순도치와 문체도치만이 가능하다.

- i) 《L'argent, disait-elle, ne fait pas le bonheur》  
ii) \* 《L'argent, ma mère disait-elle, ne fait pas le bonheur》

cf. Jones, M. A. (1996). *Foundation of French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p.471.

b. C'est mon stylo qu'a volé Luc. (J. M. A. p.526)

(24) a. C'est à Jean que ton ami a téléphoné.

b. C'est à Jean qu'a téléphoné ton ami.

(Kayne & Pollock(2001;108))

⑥ ne-que 구문

위의 분열문과 마찬가지로 초점화(focalization)<sup>5)</sup>를 시키고자 하는 구문 중, 좀 더 강한 초점화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ne-que 구문에서도 문체 도치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25) Ne sont venus que Jean et Marie. (Kayne & Pollock(2001;143))

2.4. 문체 도치에 대한 이론적인 쟁점<sup>6)</sup>

프랑스어의 문체 도치 구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들을 유발한다. 첫째, 확대투사원리(EPP)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다. 확대투사원리란, “모든 절에서 주어 위치는, 즉 TP의 지정어 위치는 통사 요소에 의해 채워져야 한다.”<sup>7)</sup>는 원리이다. 이 원리가 필요한 이유는 주어 위치에 허사가 나타나는 다음 예문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5) 초점화(focalization) : 어떠한 글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부분을 초점(focus)이라 한다. 초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제라고 부르며, 보통 가장 강한 문장 강세가 주어진다. 분열문이나 ne-que 구문은 초점을 명시하는 기능을 갖는 초점화 구문이라 할 수 있다.

cf. 原口庄輔 · 中村捷, op.cit., p. 288.

6) 2.4.는 Hulk, A., and Pollock, J.-Y. (2001)에 언급된 이론적 쟁점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7) Adger, D. (2003). *Core Syntax - A Minimalist Approach*. Oxford University Press. p.211.

(26) a. \*(II) pleure.

b. \*(II) semble que Pierre aime Marie.

위 예문들은 의미적 차원에서 주어 요소가 필요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통사 차원에서는 주어 위치가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문체 도치의 한 예인 다음 문장을 보자.

(27) Qu'a dit Jean?

위 예문이 보여주듯이 문체 도치 구문의 경우, 주어가 정상적인 위치에 나타나지 않는다. 위 예문에서 정상적인 위치는, 즉 TP의 지정어 위치는 que 와 동사 a 사이인데 여기에 주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위 예문은 EPP를 어기고 있다. 하지만 용인 가능한 문장이다. 따라서 문체 도치 구문 일반에 대하여 EPP가 어떻게 만족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둘째, 다른 여러 로맨스어와 비교했을 때, 프랑스어의 문체 도치가 더 제약적이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어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문체 도치가 허용되나, 프랑스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프랑스어의 특이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28) a. E' partito Gianni. (이탈리아어)

est parti Gianni.

b. \*Est arrivé Jean.

셋째, 문체 도치 구문에서 주어는 비정상적인 위치, 즉 문장의 가장 오른쪽 끝에 위치한다. 이렇게 동사 뒤에 나타나는 주어의 구조적 위치는 어디

인가?

위의 세 가지 문제점들은, Aafke Hulk & Jean-Yves Pollock(2001;4)에서 지적하듯이, 60년대나 70년대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다음의 추가적인 가정들이 80년대 이후에 나타나면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분석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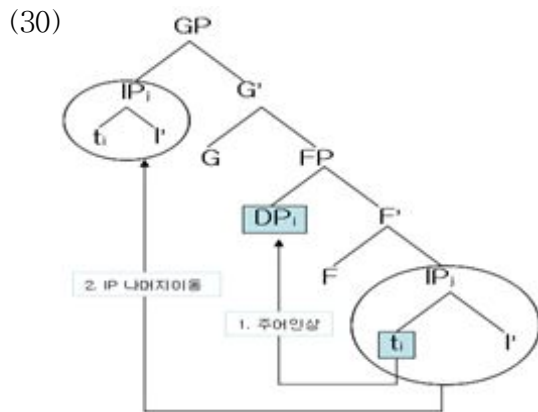
- A. 주어 DP는 기저 구조에서 VP/vP의 지정어 위치에 생성된 후, EPP 자질점검을 위해 IP 영역의 여러 층위로 유인된다.
- B. 동사들도 자질 점검을 위해 IP 영역의 여러 핵어들로 유인된다.
- C. CP 영역은 복합적인 구조를 갖는다. 종래의 CP는 Force, Focus, Topic, Finiteness를 포함한 여러 기능 핵어들의 총합으로, 이 핵어들은 고정된 계층순서를 가지고 있고, 이들이 관련자질을 가진 구를 지정어 자리로 유인한다.

위의 가정들로, 문체 도치 구문의 주어 위치에 대한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 분석은, 주어가 이동하지 않고 기저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다. 즉, 다음 (29a)에서 동사가 Infl로 이동한 결과 VP의 지정어 위치에 기저 생성된 주어 DP는 동사 뒤에 남게 되고, 비대격 동사 구문인 (29b)에서도 목적어 위치에 기저 생성된 DP는 역시 동사 뒤에 남게 된다.

- (29) a. [ $\dots V_i + \text{Infl}$  [ $\dots t_i \dots [_{VP} DP [t_i (DP)]]$ ]]  
b. [ $\dots V_i + \text{Infl}$  [ $\dots t_i \dots [_{VP} t_i DP]$ ]]

이 분석에서는 EPP 점검이 문제가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어휘적 요소가 Infl의 D 자질을 점검한다는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즉, 허사에 상응하는,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요소가 TP의 지정어 위치에 있다고 보거나 또는 동사가 T로 이동하여 EPP를 점검한다고 보는 분석들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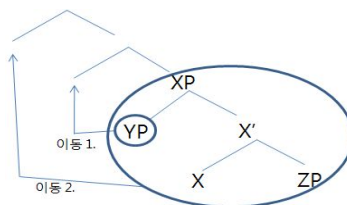
두 번째 가능한 분석은, IP의 지정어 위치에 있던 주어가 IP를 넘어 좌측으로 인상된 후 나머지 부분, 즉 IP 전체가, 이동한 주어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보는 분석이다. 나머지 부분의 이동을 나머지 이동(remnant movement)<sup>8)</sup>이라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도식에서 FP와 GP는 CP와 IP 사이에 있는 임의의 기능범주이다.



위 이동의 결과, 주어는 문장의 제일 오른쪽에 나타나게 된다.

이 분석에서 EPP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래 주어는 IP의 지정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의 흔적이 EPP를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이 분석의 문제는 주어 인상 이동의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의 도착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이다. 그리고 동일한 문제가 잔여 부분인 IP의 이동에 대해 제기된다. 이 문제들에 대한 대답이 종래의 CP 영역에 대해 복합적인 구조를 상정하는 최근의 제안들에 의해 제시될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 가능성이 Kayne & Pollock(2001)과 Poletto & Pollock(2004)에서 추

8) 나머지 이동(remnant movement) : 다음 구조에서 보듯이, XP 속에 있는 한 요소가 이동한 후 XP 전체가 이동하는 것을 나머지 이동이라고 한다.



구되는데 다음 장에서 이 연구들을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이다.

정리하자면, 문체 도치에 관련된 이론적인 핵심적인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 (31) a. 문체 도치 구문에서 EPP는 어떻게 만족되는가?  
b. 왜 프랑스어의 문체 도치는 다른 로맨스어와 비교했을 때 보다 제약적인가?  
c. 문체 도치 구문의 도치 주어는 구조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가? 도치 주어는 기저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가? 이동했다면, 그 위치는 어디이고, 이동의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다룬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검토한 후,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 3. 기존 연구

이번 장에서는 프랑스어의 문체 도치 현상에 대한 대표적인 기존 연구들인 Kayne & Pollock(1978), Kayne & Pollock(2001), Poletto & Pollock(2004)를 순차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3.1. Kayne & Pollock(1978)<sup>9)</sup>

이 논문의 주장은 프랑스어의 문체 도치가 qu-요소와 보문소의 접속법 자질 +F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이다.

먼저 qu- 구문들을 살펴보면, 주절뿐만 아니라 종속절에서도 문체 도치를 발견할 수 있다.

- (32) a. Quand partira ton ami?  
b. Je me demande quand partira ton ami.  
c. La maison où habite cet homme est très jolie.

또한 예문 (33)과 같이 qu-가 없는 구문에서는 문체 도치가 적용될 수 없는데, 이것은 qu-요소에 의해 문체 도치가 유발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 (33) a. \*Partira ton ami?  
b. \*Je me demande si partira ton ami.

이 때 qu-요소는 도치된 주어 보다 선행되어야만 한다. qu-요소가 선행되

---

9) 3.1.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Kayne & Pollock(1978)에서 사용한 예문들을 그대로 인용함을 밝혀둔다.

지 않은 문장들은 문체 도치가 적용된 대응 문장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 (34) a. Ton ami paritra quand?  
b. \*Partira ton ami quand?

접속법에서도 또한 문체 도치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 (35) Il faut que parte Marie.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qu-요소와 접속법의 보문소(+F)를 문체 도치의 촉발자로 규정한다. 이 촉발자들과 함께, 문체 도치 구문에서 나타나는 주어의 이동은 문체 도치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된다.

### 3.1.1. 연속 순환성(successive cyclicity)과 문체 도치

연속 순환성이란, qu-요소가 이동할 때, 그것의 기저 위치에서 표면 구조의 위치까지 한 번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절의 보문소 위치를 들렀다가 주절의 보문소 위치로 이동하는 순차적인 이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Qui a-t-elle dit que Paul avait vu? 라는 문장에서 qui의 이동 순서는 다음과 같다.

- (36) Elle a dit [que Paul avait vu qui] →  
Elle a dit [qui que Paul avait vu] →  
Qui elle a dit [que Paul avait vu]

이러한 연속 순환성을 지지하는 논거로 문체 도치를 들 수 있다. 문체 도치

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연속 순환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더 나은 이론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연속 순환성을 전제로 한 다음의 국부적인 변형 규칙을 문체 도치의 규칙으로 가정한다.<sup>10)</sup>

10) Kayne & Pollock(1978)은 연속 순환성과 함께 문체 도치를 분석하고 있다. 연속 순환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경우, 문체 도치 구문들의 여러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연속 순환성을 부인한다면, 우선 규칙 (37)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begin{array}{l} \text{qu- X NP Y} \rightarrow 1\ 2\ e\ 4\ 3 \\ 1\ 2\ 3\ 4 \end{array}$$

그러나 이 규칙은 qu-요소가 주절에서 생성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지 못한다.

- i) a. Qui a dit que Paul pleure?
- b. \*Qui a dit que pleure Paul?

위 예문들에서 qu-는 주절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더 낮은 COMP를 지나지 못하여 종속 절에서 문체 도치가 적용된 예문 i)b.는 비문이 된다. 따라서 수정된 규칙으로는 위 예문과 같은 문장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규칙(37)을 대신할 수 있는 두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begin{array}{l} \text{qu-(i) X NP Y t(i) Z} \rightarrow 1\ 2\ e\ 4\ 5\ 6\ 3 \\ 1\ 2\ 3\ 4\ 5\ 6 \end{array}$$

이 규칙은 qu-가 이동한 "흔적(trace)"를 함께 표시한다. 이 대안 규칙은 (37)이 분석할 수 있는 예문들을 모두 분석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음의 "combien de"구문을 설명하지 못한다.

- ii) a. ??Combien a-t-il dit que d'enfants étaient venus?
- b. ?Combien a-t-il dit qu'étaient venus d'enfants?

위 예문들에서 combien은 NP에서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combien<sub>i</sub>...[NP t<sub>i</sub> d'enfants]...의 어순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어순은 위의 규칙으로 나타낼 수 없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대안 규칙으로는 접속법 구문을 설명할 수가 없다. qu- 구문에서는 구조적으로 아래로 향한 확장이 가능하지만, 접속법에서는 불가능하다. 만약 접속법이 그것 속에 또 다른 종속된 직설법을 가지고 있을 경우, 문체 도치는 종속된 직설법 절에서 적용될 수가 없다.

- iii) a. J'exige que tu penses que cette solution sera éliminée.
- b. \*J'exige que tu penses que sera éliminée cette solution.

따라서 접속법의 문체 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칙을 또 만들어야만 한다.

$$\begin{array}{l} +F X NP Y \rightarrow 1\ 2\ e\ 4\ 3 \\ 1\ 2\ 3\ 4 \end{array}$$

그러나 위의 규칙은 왜 접속법의 규칙이 변수 X를 포함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며, 비문법적인 예문 iii) b.를 문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좋은 규칙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37) qu-/ +F (que) NP X → 1 2 e 4 3

1        2        3    4

이 (37)의 규칙은 두 가지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즉, 화살표 왼쪽에는 문체 도치 구문의 환경을, 그리고 화살표의 오른쪽에는 문체 도치 후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항을 하나의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문체 도치의 촉발자인 qu-와 +F는 반드시 주어에 인접해야 한다. 이 규칙이 연속 순환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종속절에서 문체 도치가 적용된 문장들을 보면 알 수 있다.

(38) Elle croit [que Marie a soupé avec qui] →

Elle croit [avec qui que Marie a soupé] →

qu-(1)    (2)    NP(3)    X(4)

Elle croit [avec qui que        a soupé Marie] →

qu-(1)    (2)    (e)    X(4)    NP(3)

Avec qui elle croit [que a soupé Marie] →

Avec qui croit-elle qu'a soupé Marie?

우선 위의 예문에서 qu-요소인 avec qui가 연속 순환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중간 구조가 나올 수 있으며, 이 중간 구조에 의하면 qu-요소가 주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종속절의 문체 도치가 가능해진다. 만약, 연속 순환성이 아닌 직접이동가설을 고려했다면, avec qui가 한 번에 문장 앞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중간 구조가 도출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종속

---

두 번째 규칙도 문체 도치의 규칙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절에서 문체 도치가 적용될 수 없다. 결국 직접이동가설로는 종속절의 문체 도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연속 순환성은 다수의 종속절과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을 만들어낸다. qu-가 주절에서 생성된 경우, 문체 도치는 주절에만 적용되고, qu-가 종속절에서 생성된 경우, 종속절과 더불어 주절에서도 문체 도치가 적용된다.

- (39) a. ?A quoi voit Luc que Jean est venu?  
b. \*A quoi voit Luc qu'est venu Jean?  
c. ?Avec qui a prétendu Marie que sortirait Jean?

예문 (39a, b)는 qu-요소가 주절에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주절에만 문체 도치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39a)는 용인 가능한 문장이지만, 주절과 종속절에 모두 문체 도치가 적용된 (39b)는 비문이 된다. 반대로 종속절에서 qu-요소가 생성된 (39c)와 같은 경우, 종속절과 주절 모두에 문체 도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제 qu-요소가 세 번 순환하는 구조를 살펴보겠다.

- (40) a. [Les filles avec qui tu disais que cette pauvre femme prétendait que son mari sortirait] sont toutes là.  
b. [Les filles avec qui tu disais que cette pauvre femme prétendait que sortirait son mari] sont toutes là.  
c. \*?[Les filles avec qui tu disais que prétendait cette pauvre femme que son mari sortirait] sont toutes là.  
d. \*?[Les filles avec qui tu disais que prétendait cette pauvre femme que sortirait son mari] sont toutes là.

위 예문들에서 qu-요소인 관계 대명사 avec qui는 구조적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종속절에서 생성된 후 세 개의 절을 건너 이동하였다. qu-요소의 이동에는 연속 순환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qu-요소는 매 절의 보문소 위치를 거쳐 이동할 것이다. 따라서 매 절마다 문체 도치를 예측하게 된다. (40b)는 최하위절에서 문체 도치가 이루어졌는데 예측한 바대로 문법적이다. (40c)에서는 중간 절에서만 문체 도치가 이루어졌는데 예측과 달리 비문이다. 그리고 (40d)에서는 최하위 절과 중간 절 모두에서 문체 도치가 이루어졌는데 예측과 달리 역시 비문이다. 그렇다면 문체 도치의 적용에는 (37) 이외에 다른 제약이 필요한가?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도치된 NP 위치를 바꾸면 (41)처럼 좀 더 나은 문장이 되기 때문이다.

(41) ?[Les filles avec qui tu disais que prétendait que sortirait son mari  
 [NP la pauvre femme dont je viens de te parler]] sont toutes là.

사실 (37)의 적용 결과 어순은 (40d)가 아니라 (41)과 같이 되어야 한다.

### 3.1.2. il 부재 비인칭 구문과 문체 도치 구문

qu-요소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문체 도치 구문들은 직설법에는 적용될 수 없지만 접속법에서는 적용 가능하다.

(42) a. \*Marie pense qu'a crié Pierre.

b. \*Elle dit que partira son ami.

(43) a. Je veux que parte Paul.

b. J'exige que soit éliminée cette solution.

위 예문들의 문법성은 (37)로 포착될 수 있다. 왜냐하면 (37)에 의하면 문체 도치가 이루어지는 절의 보문소 위치에는 qu-요소가 포함되거나 아니면 +F, 즉 접속법 자질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2)의 예문들이 비문법적인 이유는 종속절이 qu-요소를 포함하는 것도 아니고 접속법 절도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43)의 예문들이 문법적인 이유는 종속절이 qu-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접속법 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 il 부재 비인칭 구문을 보자.

(44) a. Je veux que soit procédé au réexamen de cette question.

b. J'exige que soit mis fin à ce conflit.

위 구문의 특징은 접속법 절에 비인칭 주어 il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문법적이라는 점이다. 이 구문을 문체 도치 구문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문체 도치의 한 특징은 도치의 적용이 수의적이라는 점인데 il 부재 비인칭 구문에는 상응하는 도치 전의 구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문장 내의 NP들 중 전치사 à의 목적어 le réexamen de cette solution 과 ce conflit가 도치 주어라면 다음과 같은 도치 전의 문장은 문법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45) a. \*Je veux que le réexamen de cette question soit procédé à.

b. \*J'exige que ce conflit soit mis fin à.

(44b)에서는 (46)에서처럼 fin을 주어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과거분사의 일치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의도한 (44b)의 문장과 (46)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6)에서는 fin이 과거분사와 일치하고 있지만, (44b)에서는 그렇지 않다.

(46) ???J'exige que fin soit mise à ce conflit.

결국 fin도 도치 주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44)에서는 주어를 찾을 수 없다.

il 부재 비인칭 구문은 다음과 같은 정상적인 비인칭 구문에서 출발하여 도출됐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47) a. Je veux qu'il soit procédé au réexamen de cette question.  
b. J'exige qu'il soit mis fin à ce conflit.

즉, (44)의 예문들은 (47)의 예문들에 문체 도치가 적용된 후 문장 제일 오른쪽에 나타나는 비인칭 주어 il을 삭제하는 규칙이 적용되어 도출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il 삭제 규칙은 다음 예문들의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없다. 이 규칙이 적용된 다음 (48b)와 (49b)는 비문이다.

- (48) a. Je veux qu'il pleuve.  
b. \*Je veux que pleuve.

- (49) a. Je veux qu'il vienne 35 personnes.  
b. \*Je veux que vienne 35 personnes.

il 부재 비인칭 구문이 주어 도치를 연루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체 도치의 한 경우로 취급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구문이 나타나는 환경은 문체

도치 구문의 환경과 거의 같다. 이 구문은 문체 도치와 마찬가지로 (50)에서 처럼 직설법 절에서는 불가능하고, (44)에서 보았듯이 접속법 절에서는 가능하다.

- (50) a. \*Je pense que sera procédé au réexamen de cette solution.  
b. \*Elle dit que sera mis fin à ce conflit.

또한 문체 도치의 환경 중 하나인 qu- 구문에서도 il 부재 비인칭 구문이 용인된다.

- (51) a. ?Quand sera mis fin au conflit?  
b. ?Quand sera procédé au réexamen du problème?

- (52) a. ?Je me demande quand sera mis fin au conflit?  
b. ?Je me demande quand sera procédé au réexamen du problème?

심지어 il은 종속절에서 기저 생성된 qu-요소가 주절로 이동한 경우에도 종속절에서 부재할 수 있다.

- (53) a. ?Quand penses-tu que sera mis fin au conflit?  
b. ?Quand penses-tu que sera procédé au réexamen du problème?

- (54) a. ?Quand as-tu dit que sera mis fin au conflit?  
b. ?Quand as-tu dit que sera procédé au réexamen du problème?

그리고, qu-가 주절에서 생성되는 경우 종속절에서는 il의 부재가 허용되지

않는다.

(55) a. \*Qui t'a dit que sera mis fin à ce conflit?

b. \*Qui t'a dit que sera procédé au réexamen du problème?

뿐만 아니라, qu-가 아닌 의문 보문소 si에 의해 도입되는 종속절에서는 il의 부재가 허용되지 않는다.

(56) a. \*Je me demande si sera mis fin au conflit.

b. \*Je me demande si sera procédé au réexamen du problème?

지금까지 il 부재 비인칭 구문과 문체 도치 구문의 환경이 유사하다는 것을 보았다. 즉, 두 구문 모두 보문소 영역에 qu-요소 또는 접속법 자질을 포함한다. 하지만 il 부재 비인칭 구문은 주어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반면 문체 도치 구문의 경우는 주어 도치가 일어난다.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Kayne & Pollock(1978)은 문체 도치 구문에서 주어 도치 과정을 독립된 과정으로 간주한다.

(57) NP X → e 2 1

1 2

그리고 문체 도치 구문과 il 부재 비인칭 구문의 공통된 출현 환경을 포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허 조건을 가정한다.

(58) 공주어가 촉발자 qu-/+F의 직후에 있지 않는 문장을 비문법적인

것으로 표시하라. (Mark as ungrammatical any sentence containing an empty subject position not immediately preceded by the trigger 'wh/+F' (que).)

(58)은 공주어에 대한 인허 조건이다. 즉, 주어가 발음되지 않는 요소일 경우 바로 왼쪽에 있는 'qu-/+F' (que) 요소에 의해 인허되어야 한다. 발음되지 않는 주어 요소라 함은 문체 도치에서 주어 도치로 결과하는 흔적과 그리고 *il* 부재 비인칭 구문의 공주어를 뜻한다.

이 인허 조건은 (37)의 문체 도치 적용 조건과 동일하다. 따라서 (37)이 포착하는 모든 사항들은 (58)의 인허 조건으로 다 포착할 수 있다. 거기에서 (58)은 *il* 부재 비인칭 구문까지 포함하여 기술하고 있으므로 (37)보다 더 포괄적이다.

### 3.1.3. 결론 및 문제점

이 논문의 결론은 문체 도치가 qu- 환경과 접속법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규칙으로 처음에는 qu-/+F que NP X → 1 2 e 4 3 이라고

1        2    3   4

제안하였다. 이 (37)의 규칙은 두 가지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즉, 화살표 왼쪽에는 문체 도치 구문의 환경을, 그리고 화살표의 오른쪽에는 문체 도치 후의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항을 하나의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문체 도치 구문과 *il* 부재 비인칭 구문의 출현 환경이 동일함을 포착하기 위해 Kayne & Pollock(1978)은 결국 (37)을 포기하고 대신 규칙 (37)이 기술하고 있는 두 사항을, 즉 문체 도치 구문의 환경 조건과 문체 도치의 결과를 서로 독립된 사항으로 설정한다.

- NP 이동: NP X → e 2 1

1 2

- 촉발자 제약(trigger restriction): 공주어가 촉발자 qu-/+F의 바로 앞에 있지 않는 문장을 비문법적인 것으로 표시하라.

그런데 위 촉발자 제약에 대해서 공주어가 왜 qu-요소 또는 접속법 자질에 의해 인허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즉, qu-요소와 접속법 자질 사이에는 어떤 공통적 특성이 있기에 공주어를 인허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매우 근본적인 질문임에도 Kayne & Pollock(1978)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없다. 그리고 NP 이동의 경우에도 도치 주어가 절의 제일 오른쪽에 나타난다는 것만 지적하고 있지 그 구조적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가 지적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완전히 용인 가능한 문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직설법에서 문체 도치가 나타나는 경우나, qu- 구문임에도 불구하고 문체 도치가 나타날 수 없는 현상에 대해, 이 논문은 설명하지 못한다.

(59) a. ??? Je crois qu'est parti Jean.. (Kayne & Pollock(2001;125))

b. ?\*En quel sens parlent les fleurs?

(Kayne & Pollock(2001;131))

그리고 2.3.2.에서 보았던 문체 도치의 구문들 중 상황보어가 문두에 오는 경우, 속사가 문두에 오는 경우, ne-que의 경우 등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Kayne & Pollock (2001)에서 보다 발전된 분석이 제시된다.

### 3.2. Kayne & Pollock(2001)<sup>11)</sup>

이 논문에서는 문체 도치 구문의 주어가 IP를 지나 좌측 인상을 한 후, 남은 IP가 나머지 이동을 통하여 주어의 왼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문체 도치 구문의 주어가 구조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한다고 본다.

그리고 Kayne & Pollock(1978)과 비교했을 때, 이 논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촉발자의 설정을 삭제 했다는 것이다. Kayne & Pollock(1978)에서는 qu- 환경과 접속법을 문체 도치의 촉발자로 설정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되었었다. qu- 구문과 접속법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이 두 구문에서만 문체 도치가 가능한 것인가? 이 논문에서는 촉발자가 아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문체 도치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문제 제기를 피할 수 있다.

· 문체 도치의 주어 인상은 IP 바로 위의 Spec-FP를 목표로 할 수 없다.

(SI subject raising cannot target a Spec-FP immediately above IP.)

즉,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게 될 경우 문체 도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는 문체 도치 허용 조건에 대해 촉발자보다 좀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Kayne & Pollock(1978)에서는 EPP를 해결하기 위해 공주어 자리를 설정했지만, 이 논문에서는 Kayne(1972)의 “이중 접어(clitic doubling)”을 적용하여 문체 도치 구문에서의 EPP는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주어 접어(SCL: silent subject clitic)가 만족시켜준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차이점들과 더불어 문체 도치에 대한 이 논문의 여러 가지 분석들을 살펴보도록 하

---

11) 3.2.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Kayne & Pollock(2001)에서 사용한 예문들을 그대로 인용함을 밝혀둔다.

켰다.

### 3.2.1. 주어 위치

문체 도치 구문에서 주어는 동사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목적어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어 위치에 있지 않다는 논거들이 있다. 우선, 도치 주어는 동사와 함께 관용 표현을 형성하는 목적어와 양립할 수 있다.

(60) Depuis quelle heure ont faim les enfants?

여기서 avoir faim의 faim이 목적어라는 것은 다음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다.

(61) a. Cela fera avoir faim \*(à) Marie.

b. Cela fera manger une glace \*(à) Marie.

프랑스어에서는 faire에 의해 도입되는 부정법 동사가 그것의 목적어에 격을 줄 수 없다. 그래서 (61a)의 faim과 (61b)의 une glace는 사역동사 faire에게 격을 받고, 종속절의 주어인 Marie는 격 인허자(case-licenser)인 à가 반드시 필요하다. (61b)에서와 마찬가지로 (61a)에서 부정법절 주어인 Marie에게 격인허자인 à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61a)의 avoir faim에서 faim이 목적어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60)에서 도치 주어는 목적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문체 도치 구문에서 도치 주어가 직접목적어와 양립하는 경우들이 있다.

(62) a. A qui l'a montré Jean-Jacques?

b. Qu'a dit Jean ?

c. la fille à qui a tout dit Jean-Jacques

(62a)와 같은 경우, 접어인 직접 목적어가 출현하며, (62b)에서는 의문사인 직접목적어가 나타난다. (62c)에서는 직접목적어가 양화사인 경우이다. 따라서 이 예문들에서 도치 주어는 목적어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문체 도치 구문의 도치 주어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목적어 위치에 있지 않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도치 주어가 구조적으로 VP 내부에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시된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 첫 번째 증거를 en에서 찾을 수 있다.

(63) a. le jour où le juge en a condamné tro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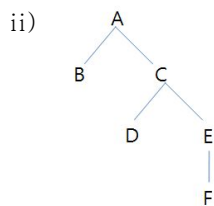
b. \*Trois en ont téléphoné.

en은 (63a)에서처럼 목적어 자리에서만 추출될 수 있고, 주어 자리에서는 추출될 수 없다. 이 사실은 en은 이것이 추출된 원래 위치를 성분통어(c-command)<sup>12)</sup>해야 한다는 가정을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다음 예

12) 성분통어(c-command) : constituent command의 약칭.

i) 임의의 두 교점  $\alpha$ 와  $\beta$ 가 어느 것이나 상대방을 관할하지 않고,  $\alpha$ 를 관할하는 최초의 분지교점이  $\beta$ 를 관할할 경우  $\alpha$ 는  $\beta$ 를 성분통어한다 (Reinhart (1976:32)).

구체적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위 구조에서 B를 관할하는 최초의 분지교점은 A이고, A는 C, D, E, F를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B는 C, D, E, F를 성분통어한다. C를 관할하는 최초의 분지교점은 A이며, A가 B를 관할하고 있으므로, C

문들이 보여주듯이 문체 도치 구문에서 도치 주어로부터 en이 추출됐을 경우 언제나 비문이다.

- (64) a. \*le jour où en ont téléphoné trois  
b. \*A qui en ont téléphoné trois?

한편 en의 위치는 I, 적어도 VP 밖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만약 (64)에서 도치 주어의 위치가 VP 내부라면 en이 도치 주어를 성분통어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달리 (64)의 예문들이 문법적이기를 기대해야 한다. 따라서 (64)의 예문들이 비문이라는 사실은 도치 주어가 적어도 VP 밖에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en과 유사한 사실들은 관사가 없는 de-NP 구조에서도 나타난다. peu와 같은 양화사는 조동사와 과거분사 사이에 오며, 그것은 de-NP의 인허자이다. (65b)가 보여주듯이 이런 종류의 양화사가 없으면 de-NP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양화사는 목적어 de-NP만 허용하고, 주어 de-NP는 허용하지 않는다 (65c). 그런데 문체 도치가 적용되어 주어가 동사 뒤에 올 경우 de-NP 형태의 도치 주어는 허용되지 않는다 (65d). 이것 또한 도치 주어가 목적어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 (65) a. Jean a peu vu de linguistes.  
b. \*Jean a vu de linguistes.  
c. \*De linguistes ont peu vu Jean.  
d. \*Ce qu'ont peu dit de linguistes.

---

는 B를 성분통어한다. (따라서 B와 C는 서로 성분통어한다.) F를 관할하는 최초의 분지교점은 C이다. C에게 관할되고, F와 관할관계에 있지 않는 교점은 D이므로, F에 의해 성분통어되는 것은 D이다.  
cf. 原口庄輔·中村捷 (1998), 강명윤 옮김, 『츄스키 언어학 사전』, 한신문화사, p. 126.

(65d)의 문장이 비문인 사실은 동사 뒤의 도치 주어(de linguistes)가 peu에 의해서도 성분통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de-NP는 부정요소에 의해서도 성분통어되어야만 한다.

(66) \*Quel livre n'ont pas lu de linguistes?

만약 위의 예문에서 도치 주어 de-NP가 목적어라면 (66)은 용인 가능한 문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비문이 된다는 것은 결국 pas가 성분통어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도치 주어 de-NP는 pas보다 구조적으로 위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우선 문체 도치에서 나타나는 도치 주어는 여러 유형의 직접 목적어들과 함께 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목적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문체 도치 구문의 도치 주어에서 en을 추출할 수 없고, en이 자신의 흔적을 성분통어해야 함을 고려하면 결국 도치 주어는 en보다 구조적으로 더 위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양화사 de-NP, 부정사 de-NP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같은 사실들은 문체 도치 구문의 주어가 낮은 위치, 즉 VP 내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것들을 바탕으로 문체 도치 구문의 주어가 IP 왼쪽으로 이동하여 구조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논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체 도치는 주어의 인칭 자질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강제형 3인칭 대명사는 문체 도치 구문과 일반적인 문장에서 주어로써 나타날 수 있다.

(67) a. Qu'a mangé LUI?

b. Quand ont téléphoné EUX?

- (68) a. LUI a téléphoné.  
 b. EUX ont téléphoné.

반대로 강제형 1, 2인칭 대명사는 문체 도치 구문과 일반적인 문장에서 주어로 쓰일 경우 모두 비문이 된다.

- (69) a. \*Quand ai téléphoné MOI?  
 b. \*Qu'as mangé TOI?  
 c. \*Qu'avons mangé NOUS?  
 d. \*Quand avez téléphoné VOUS?

- (70) a. \*MOI ai téléphoné hier.  
 b. \*TOI as mangé un gâteau.  
 c. \*NOUS avons mangé un gâteau.  
 d. \*VOUS avez téléphoné hier.

그러나 강제형 인칭 대명사가 접어 대명사와 함께 쓰이면 1, 2, 3인칭 모두 가능하다.

- (71) a. Moi, j'ai téléphoné hier.  
 b. Toi, tu as mangé un gâteau.  
 c. Nous, nous avons mangé un gâteau.  
 d. Vous, vous avez téléphoné hier.  
 e. Lui, il a téléphoné.  
 f. Eux, ils ont téléphoné.

여기서 이 논문은 (68a, b)가 (71e, f)처럼 접어 주어를 가진다고 제안한다. 다만 이들의 차이점은 후자에서와 달리 전자에서는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주어 접어(SCL: silent subject clitic)라는 것이다. 그리고 (68)의 예문들과 (70)의 예문들이 보여주는 문법성의 차이점, 즉 3인칭 강세형의 경우와 달리 1, 2인칭 강세형의 경우 비문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가정을 설정한다.

(72) 프랑스어에서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접어들은 3인칭에 제한된다.

(Silent clitics in French are limited to the third person.)

(67)의 예문들과 (69)의 예문들이 보여주는 문법성의 차이점, 즉 3인칭 강세형의 경우 문체 도치가 가능하지만 1, 2인칭 강세형의 경우는 문체 도치가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의 가정에 기인한다고 본다.

(73) 문체 도치 구문들은 반드시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동사 앞) 주어 접어를 포함한다. (SI sentences necessarily contain a silent (preverbal) subject clitic.)

즉, 1, 2인칭 강세형이 문체 도치된 (69)의 예문들에서는 (72)의 가정에 의해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접어 대명사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가정 (73)에 의해 문체 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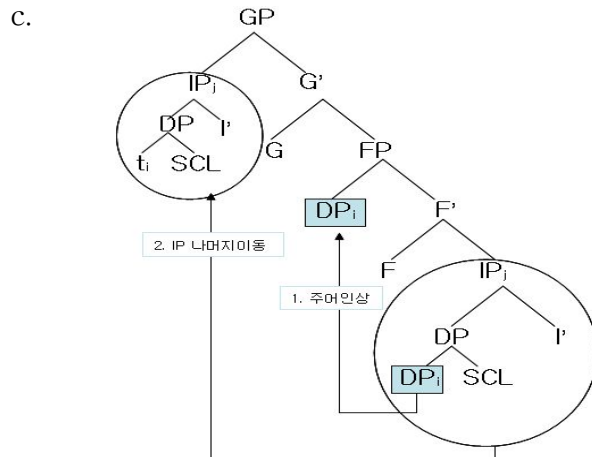
이 논문에서는 복합 도치에 대한 Kayne(1972)의 제안인 “이중 접어(clitic doubling)”를 적용하면서, 문체 도치 구문의 도치 주어는 더 큰 DP의 핵인 SCL(silent subject clitic)의 지정어 위치에서 시작된다고 제안한다. 이 논문이 가정하는 도치 구문의 도출은 다음과 같다.<sup>13)</sup>

(74) a. le jour où a téléphoné Jean

b. [IP Jean-SCL a téléphoné] ⇒

[FP Jean<sub>i</sub> F [IP t<sub>i</sub>-SCL a téléphoné]] ⇒

[GP [IP t<sub>i</sub>-SCL a téléphoné]<sub>j</sub> G [FP Jean<sub>i</sub> F t<sub>j</sub> ]]



도치 주어가 원래 위치에 있지 않고, IP 위쪽의 더 높은 곳에 있다는 주장의 두 번째 논거는 비한정 표현 불가(counter-indefiniteness)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Kupferman(1983)에 따르면 문체 도치 구문의 도치된 주어 DP는 비한정 표현이 될 수 없다. 다음 예문은 도치 주어인 *quelqu'un*이 비한정 표현이기 때문에 비문이다.

(75) \**Quel gâteau a mangé quelqu'un?*

한편, 좌측 이탈(left dislocation) 구문에서 이탈어(dislocated element) 또한 비한정 표현이 될 수 없다.

13) (74)의 도출 과정에 의하면 도치 주어가 IP 직전의 기능범주인 F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정하고 있는데, 이는 나중에 논의 되듯이 의문사 이동이 있고 난 후 도치 주어가 CP 영역으로 이동되어야 한다고 수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86)과 관련된 논의를 참고할 것.

(76) \*Quelqu'un, il mangera ce gâteau.

위 예문에서 이탈어 *quelqu'un*은 분명 IP 상위에 나타나는 요소이다. 즉, 이 예문은 IP 상위에 비한정 표현이 나타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문체 도치 구문의 도치 주어는 비한정 표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 도치 주어는 IP 상위에 있다고 보았을 때 잘 설명될 수 있다.

세 번째 논거는, 문체 도치 구문의 도치 주어는 접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77) a. Quand a téléphoné Jean?

b. \*Quand a téléphoné 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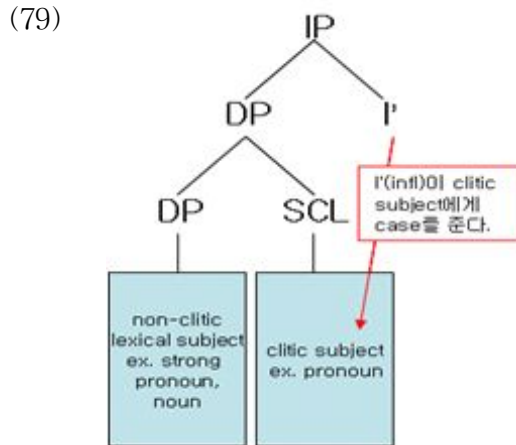
그런데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명사구 주어와 접어 주어의 공동 출현은 가능하다. 그러나 접어 주어는 두 번 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78) a. Jean, il mangera ce gâteau.

b. \*Il, il mangera ce gâteau.

(78b)가 비문인 이유는 격 사항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접어 주어는 격이 실현된 형태이므로 반드시 격이 있어야 한다. (78b)가 비문인 이유는 두 접어 주어 중 하나가 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어휘 주어는 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78a)는 용인 가능한 문장이 되는 것이다. 격 부여에 대한 이런 가정과 문체 도치 구문에서의 IP 지정어 구조에 대한 다음 (79)와 같은 가정이 주어졌을 때, (77b)에서처럼 문체 도치 구문의 도치 주어는 접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77b)에서 IP의 지정어 위치에는

받음되지 않는 접어(SCL)가 존재한다. 그리고 굴절 요소로부터 주격을 부여 받는 요소는 바로 이 SCL이다. 이 때 도치 주어인 접어 주어 *il*은 격을 받을 수 없다. (77b)가 비문인 이유는 반드시 주격을 필요로 하는 이 접어 주어 *il*이 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Kayne & Pollock은 인칭, 부정대명사, SCL을 근거로, 문체 도치 구문의 도치 주어는 IP를 지나 좌측인상을 하고, 그 후에 IP는 그 보다 더 왼쪽에 있는 높은 위치로 이동한다고 분석한다.

### 3.2.2. 직설법과 접속법

접속법 문장에서는 *qu*-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체 도치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80) Il faut que parte Jean.

그리고 접속법과 달리 직설법인 경우는 대부분 문체도치가 발생할 수 없다.

(81) \*Est parti Jean.

(82) \*Je ne sais pas si est parti Jean.

(83) \*Il est évident qu'est parti Jean.

그러나 다음의 예문을 보면, 완전히 용인 가능한 문장은 아니지만, 직설법에  
서 문체도치가 가능한 구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4) ??? Je crois qu'est parti Jean.

여기서 발견되는 의문점은 똑같은 직설법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문체 도치가  
적용되었을 때, 왜 (84)가 (83)보다 상대적으로 용인 가능한 문장이 되는가  
이다. Kayne & Pollock은 이 문제는 ECM<sup>14)</sup> 효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타  
당하다고 본다. ECM이란 예외적 격 표시(exceptional case marking)로 주  
절의 동사가 종속절의 주어에 격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84)와 (83)의 차이  
점은 전자인 경우 ECM 동사인 crois를 내포하는 반면, 후자에서는 ECM이  
불가능한 형용사 évident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는 조금 후에 논의하겠다.

Kayne & Pollock(2001)에서는 보문소 que가 IP와 함께 하나의 성분인 C'

---

14) ECM (exceptional case marking, 예외적 격 표시) :

i) They believe [IP John to be intelligent].

i)에서 John은 intelligent에게서 의미역을 받고 believe에게서 격을 받는다. believe의 내재 의미역은  
종속절 IP 전체에게 주어진다. 이와 같이 격이 IP와 같은 최대투사범주를 넘어서 주어질 때, 이것을 예  
외적 격표시(ECM)라고 한다.

cf. 原口庄輔 · 中村捷, op.cit., p. 267.

또는 CP를 구성한다는 일반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한다. 접속법 구문에서의 문체 도치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의문점은 문체도치가 IP 병합 단계에서 적용되는지, 아니면 보문소 que가 도입된 후에 적용되는지 이다. 이 논문에서는 IP 병합 단계에서의 주어인상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85)의 문장이 배제된다. 왜냐하면 (85)의 도출은 IP 병합 단계에서의 주어 인상을 필수적으로 연루시키기 때문이다.

(85) \*Est parti Jean.

그렇다면 왜 IP 병합 단계에서는 주어 인상이 불가능한가? 이에 대해 Kayne & Pollock은 다음을 가정한다.

(86) 문체 도치의 주어 인상은 IP 바로 위의 Spec-FP를 목표로 할 수 없다.  
(SI subject raising cannot target a Spec-FP immediately above IP.)

(86)은 (84)와 같은 직설법의 문체 도치뿐만 아니라, qu- 구문들의 문체 도치와 접속법의 문체 도치를 통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87) Quand téléphonerá Jean?

위 예문의 도출순서, 즉 이동순서는 다음과 같다.

(88) Jean-SCL téléphonerá quand ⇒ 1차 의문사 이동 ⇒  
quand<sub>i</sub> X [<sub>IP</sub> Jean-SCL téléphonerá t<sub>i</sub>] ⇒ 주어 인상 ⇒  
Jean<sub>j</sub> F [<sub>XP</sub> quand<sub>i</sub> X [<sub>IP</sub> t<sub>j</sub>-SCL téléphonerá t<sub>i</sub>]] ⇒ 나머지 IP 이동 ⇒

$[_{IP} t_j\text{-SCL téléphonerà } t_i]_k G [_{FP} \text{Jean}_j F [_{XP} \text{quand}_i X t_k]] \Rightarrow$   
 2차 의문사 이동  $\Rightarrow [_{HP} \text{quand}_i H [_{GP} [_{IP} t_j\text{-SCL téléphonerà } t_i]_k G [_{FP}$   
 $\text{Jean}_j F [_{XP} t_i X t_k]]]$

IP 단계에서 주어인 Jean이 가장 먼저 이동할 경우, (86) 때문에 비문이 되므로, 의문사 이동부터 시작하여 (88)과 같은 4단계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접속법 문장인 (80)의 도출은 다음과 같다.

(89)  $\text{il faut que Jean-SCL parte} \Rightarrow \text{Spec-FP로 주어 인상} \Rightarrow$   
 $\text{Jean}_i F [_{IP} \text{il faut que } t_i\text{-SCL parte}] \Rightarrow \text{Spec-GP로 나머지 IP 이동}$   
 $\Rightarrow [_{IP} \text{il faut que } t_i\text{-SCL parte}]_j G \text{Jean}_i F t_j$

위 도출 과정이 보여주듯이 접속법의 경우는 주절 요소의 덕택으로 주어 인상이 바로 행해져도 조건 (86)을 위반하지 않는다.

다시 직설법으로 돌아오면, 문제는 어떻게 (84)가 만족되는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90)  $\text{je crois que Jean-SCL est parti} \Rightarrow \text{1차 주어 인상} \Rightarrow$   
 $\text{je crois Jean}_i \text{ que } t_i\text{-SCL est parti} \Rightarrow \text{2차 주어 인상}$   
 $\Rightarrow \text{Jean}_i F [_{IP} \text{je crois } t_i \text{ que } t_i\text{-SCL est parti}] \Rightarrow \text{나머지 IP 이동} \Rightarrow$   
 $[_{IP} \text{je crois } t_i \text{ que } t_i\text{-SCL est parti}]_j G [_{FP} \text{Jean}_i F t_j]$

위 도출 과정 중 첫 번째 주어 인상인 Jean의 종속절 CP의 지정어 위치로의 이동은 주절 동사 crois로부터 격을 받기 위한 것이다. (83)에서 évident의 보문절에서 문체 도치가 불가능한 이유는 이 예외격 배당을 위한 이동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접속법 문체 도치 (80)은 완전히 용인 가능한 문장이 되고, 직설법 문체 도치 (84)는 비문은 아니지만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이유는 접속법 밖으로의 이동이 직설법보다 더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86)의 설정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83)과 같은 직설법 예문에서 (89)와 같은 도출 과정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즉 접속법에서 이동이 직설법에서보다 더 자유로운 이유는 무엇인가? Kayne & Pollock(2001)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 3.2.3. EPP

프랑스어의 문체 도치 구문에서는 비인칭 수동태 문장이 허사 주어 il 없이도 용인 가능한 문장인 경우가 있다.

(91) Quand a été procédé au réexamen de la loi?

(91)을 보고 공 허사 주어(null expletive subject)<sup>15)</sup>가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으나, (92)를 보면 그 설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 허사 주어가 있다면 (92b)가 용인 가능한 문장이듯이 (92a)도 용인 가능한 문장이기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92) a. \*[Au réexamen de quelle loi] a été procédé?

b. [Au réexamen de quelle loi] a-t-il été procédé?

15) 공 허사 주어(null expletive subject) : 허사란 Il pleure.나 Il semble que Pierre aime Marie.에서 나타나는 주어 Il을 가리킨다. 이러한 허사 주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음성내용을 갖지 않은 공운용자(null operator)가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운용자인 허사 주어를 공 허사 주어라고 부른다.

cf. 原口庄輔 · 中村捷, op.cit., p. 255., p. 273.

공 허사 주어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또 다른 예문들이 있다.

- (93) a. \*Quand a neigé?  
b. \*Quand souhaiterais-tu que pleuve?  
c. \*Je souhaiterais que pleuve demain.

위 문장들이 만약 공 허사 주어를 가지고 있다면 용인 가능한 문장이 되어야 하는데, 모두 비문이다. 이 사실은 위 문장들 안에 주어가 없고, 따라서 EPP를 위반한다고 보면 잘 설명된다.

주어가 없는 문장인 (91)은 아이슬란드어의 quirky 주어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quirky 주어란, EPP를 만족시켜주는 요소가 DP가 아닌 PP일 경우, 즉 PP 주어일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프랑스어와 아이슬란드어의 차이점은, 문체 도치가 아닌 경우에도 quirky 주어가 가능한 아이슬란드어와는 달리 프랑스어에서는 문체 도치 구문과 같이 PP주어가 더 위쪽으로 이동할 때에만 quirky 주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어의 전치사 à는 EPP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반드시 SCL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91)은 PP가 아닌 SCL이 EPP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도출로 용인 가능한 문장이 된다고 본다.

- (94) a été procédé au réexamen de la loi-SCL quand ⇒  
Spec-IP로 PP주어(quirky 주어) 이동 ⇒  
[au réexamen de la loi-SCL]<sub>i</sub> a été procédé t<sub>i</sub> quand ⇒  
의문사 이동 ⇒  
quand<sub>j</sub> X [<sub>IP</sub> [au réexamen de la loi-SCL]<sub>i</sub> a été procédé t<sub>i</sub> t<sub>j</sub>] ⇒

주어 인상 ⇒

[au réexamen de la loi]<sub>i</sub> F [XP quand<sub>j</sub> X [IP t<sub>i</sub>-SCL a été procédé t<sub>i</sub> t<sub>j</sub>]] ⇒ 나머지 IP 이동 ⇒

[IP t<sub>i</sub>-SCL a été procédé t<sub>i</sub> t<sub>j</sub>]<sub>k</sub> Y [FP [au réexamen de la loi]<sub>i</sub> F [XP quand<sub>j</sub> X t<sub>k</sub>]] ⇒ 2차 의문사 이동 ⇒

quand<sub>j</sub> [YP [IP t<sub>i</sub>-SCL a été procédé t<sub>i</sub> t<sub>j</sub>]<sub>k</sub> Y [FP [au réexamen de la loi]<sub>i</sub> F [XP t<sub>j</sub> X t<sub>k</sub>]]

반면에 (92a)는 SCL이 있어서 EPP를 만족시켜준다고 해도 PP 주어의 두 번째 이동이 (86)에 의해 차단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95) a été procédé au réexamen de quelle loi-SCL ⇒ Spec-IP로의 PP 주어 이동 ⇒ [au réexamen de quelle loi-SCL]<sub>i</sub> a été procédé t<sub>i</sub> ⇒ 주어 인상 ⇒ [~~au réexamen de quelle loi~~]<sub>j</sub> X [~~IP [t<sub>j</sub>-SCL]<sub>i</sub> a été procédé t<sub>i</sub>]~~ ⇒ 나머지 IP이동 ⇒ [IP [t<sub>j</sub>-SCL]<sub>i</sub> a été procédé t<sub>i</sub>]<sub>k</sub> F [XP [au réexamen de quelle loi]<sub>j</sub> X t<sub>k</sub>] ⇒ 2차 의문사 이동 ⇒ [au réexamen de quelle loi]<sub>j</sub> Y [FP [IP [t<sub>j</sub>-SCL]<sub>i</sub> a été procédé t<sub>i</sub>]<sub>k</sub> F [XP t<sub>j</sub> X t<sub>k</sub>]]

따라서 (91)과 비슷한 예문인 접속법 문체 도치 문장 (96a)의 도출은 (96b)와 같다.

(96) a. Je souhaiterais que soit procédé au réexamen de cette loi.  
b. soit procédé au réexamen-SCL ⇒ Spec-IP로 이동 ⇒  
au réexamen-SCL soit procédé ⇒ que와 주절 요소들의 병합  
⇒ je souhaiterais que au réexamen-SCL soit procédé ⇒

(주절) Spec-FP로 주어 인상 ⇒  
 au réexamen<sub>i</sub> F [<sub>IP</sub> je souhaiterais que t<sub>i</sub>-SCL soit procédé] ⇒  
 Spec-GP로 나머지 IP 이동 ⇒  
 [<sub>IP</sub> je souhaiterais que t<sub>i</sub>-SCL soit procédé]<sub>i</sub> G au réexamen<sub>i</sub> F t<sub>i</sub>

정리하자면, 프랑스어에서는 (91)과 같은 허사 주어 *il*이 없는 비인칭 수동태 문장에서 공 허사 주어를 설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는 DP 주어가 없기 때문에 EPP를 만족시켜주지 못해 비문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 문장은 PP가 주어인 quirky 주어의 한 예로 볼 수 있으며, EPP는 PP 주어와 함께 존재하는 SCL이 만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용인 가능한 문장이 된다.

#### 3.2.4. 문체 도치의 허용 조건

Kayne & Pollock(1978)은 “문체 도치는 촉발자에 의해 일어나며, 이 문체 도치가 허용되는 문장은 *qu-* 구문과 접속법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qu-* 구문과 접속법에서만 문체 도치가 허용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Kayne & Pollock(2001)에서는 촉발자를 설정하지 않고 (86)의 설정으로 문체 도치 허용 조건을 포착하고 있다. 즉 (86)의 조건을 맞출 수 있으면 문체 도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qu-* 구문과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 이동이 먼저 일어난 후, 그 의문사를 건너서 주어 인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86)을 준수하여 항상 문체 도치가 가능하게 되고, 접속법에서는 종속절의 주어가 좌측인상을 할 때 주절 요소를 건너가기 때문에 (86)을 준수하여 역시 문체 도치가 항상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 예문 (97a)는 *qu-*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문체 도치가 적용될 수 없으며, 반대로 문체 도치가 적용되지 않은 (97b)는 용인 가능한 문장이

다.

- (97) a. ?\*En quel sens parlent les fleurs ?  
b. En quel sens les fleurs parlent ?

(97a)가 비문인 이유는 주절에 dire와 같은 추상적인 동사가 존재하고, en quel sens는 그 동사 후에 병합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고 본다.

(98) En quel sens [on peut dire que]<sub>(생략)</sub> les fleurs parlent

(98)을 보면, IP 앞에 추상적인 주절이 있다. 따라서 직설법인 종속절의 주어 les fleurs의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와 유사하게 qu- 구문이지만 문체 도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 (99) a. ?\*Pourquoi parle Pierre?  
b. ?\*Pourquoi travaillent les linguistes?

Rizzi(1990)에서는 pourquoi가 IP 밖에 생성될 가능성을 암시했었다. Rizzi의 이 암시를 IP 앞에 추상적인 주절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면 (97a)에서처럼 (99)에서도 주어 인상이 불가능할 것이다.

프랑스어에서는 (100)에서처럼 PP의 주제화(topicalization)<sup>16)</sup>를 허용한다.

---

16) 주제화(topicalization) :

주제화문이라는 것은 문두의 요소가 문장 내의 빈자리를 결속하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다.

- i) a. This book, I really like \_\_\_\_\_.  
b. John, Mary really loves \_\_\_\_\_.

Chomsky(1977b)는 주제화 구문이 의문문 등과 마찬가지로 wh구의 이동에 의해서 파생된다고 주장한다. 즉, 주제화 요소는 TOP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으며, CP의 지정어 자리에 wh를 위치시킨다.

그러나 주제화된 문장에서는 (86)의 조건을 만족시킴에도 불구하고, 문체 도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의 예문들 (101), (102)를 보면 동일한 도출인데도 불구하고 (101)은 비문, (102)는 용인 가능한 문장이다.

(100) A Jean, Marie ne parle jamais.

(101) \*A Jean ne parle jamais Marie.

(102) A qui ne parle jamais Marie?

그 이유는 (102)의 qu-와 달리 (101)의 주제어(topic)는 자신을 건너가는 문체 도치의 주어 인상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즉 주제어는 의문사보다 더 큰 정도로 섬(island)<sup>17)</sup>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주제화에 의해 만들어진 섬 효과의 결과로써 (101)이 배제된다는 사실은 다음 접어 좌측 이탈, 즉 CLLD(clitic left dislocation) 예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03) a. Ce livre-là, Marie l'a lu.

b. \*Ce livre-là l'a lu Marie.

---

이 때 wh이동은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공운용자의 이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게 된다.

ii) a. What about John?  
b. John, he CALLED. (Gundel(1974))

ii) a.에서 이미 주제가 되고 있는 John을 문두에 이동해서 담화의 흐름을 고르게 하고 있다. 따라서 ii) b.의 문장을 주제화문이라 본다.

cf. 原口庄輔 · 中村捷, op.cit., pp. 720-722.

17) 섬(island) : 어떠한 문법과정이 어느 특정한 영역 내의 요소에 적용되면 항상 용인불가능성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 그러한 경우 그 영역을 그 문법과정에 대한 섬(island)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동에 의한 요소의 적출(extraction)이 불가능한 영역을 가리킨다. 섬의 예로서는 복합명사구, 부가어, 등위구조, 주어구, qu-절 등이 있다.

cf. 原口庄輔 · 中村捷, op.cit., p. 382.

(103a)에서 주제어인 *ce livre-là*가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후 주어 Marie의 인상은 *ce livre-là*가 형성하는 섬 때문에 불가능하다. (103b)는 주어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문체도치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104)는 목적어가 주제어가 되어 의문사를 건너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어인 의문사가 주제어를 건너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주제어가 의문사보다 더 강력한 섬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 (104) a. *Ce livre-là, qui l’a lu?*  
b. \**Qui, ce livre-là, l’a lu?*

그러나 의문사와 CLLD의 결합이 문체도치와 양립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CLLD가 적용되기 전에 주어가 의문사를 건너서 이동하는 경우이다.

- (105) a. ?*Ce livre-là, quand l’a lu Marie?*  
b. *Cette fille-là, quand lui a téléphoné Jean?*

하지만 이때에도 (106)처럼 의문사가 주제어를 건너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106) a. \**Quand, ce livre-là, l’a lu Marie?*  
b. \**Quand, cette fille-là, lui a téléphoné Jean?*

(105b)의 도출은 다음과 같다.

(107) Jean-SCL lui a téléphoné cette fille quand  $\Rightarrow$  1차 의문사 이동  $\Rightarrow$   
 quand<sub>i</sub> X [<sub>IP</sub> Jean-SCL lui a téléphoné cette fille t<sub>i</sub>]  $\Rightarrow$   
 주어 인상 (CLLD 적용 전이기 때문에 주어 인상 가능)  $\Rightarrow$   
 Jean<sub>j</sub> F [<sub>XP</sub> quand<sub>i</sub> X [<sub>IP</sub> t<sub>j</sub>-SCL lui a téléphoné cette fille t<sub>i</sub>]]  $\Rightarrow$   
 나머지 IP 이동  $\Rightarrow$  [<sub>IP</sub> t<sub>j</sub>-SCL lui a téléphoné cette fille t<sub>i</sub>]<sub>k</sub> Y [<sub>FP</sub> Jean<sub>j</sub>  
 F [<sub>XP</sub> quand<sub>i</sub> X t<sub>k</sub>]]  $\Rightarrow$  2차 의문사 이동  $\Rightarrow$  quand<sub>i</sub> Z [<sub>YP</sub> [<sub>IP</sub> t<sub>j</sub>-SCL lui  
 a téléphoné cette fille t<sub>i</sub>]<sub>k</sub> Y [<sub>FP</sub> Jean<sub>j</sub> F [<sub>XP</sub> t<sub>i</sub> X t<sub>k</sub>]]]  $\Rightarrow$  좌측 이탈  $\Rightarrow$   
 cette fille<sub>i</sub> G [<sub>ZP</sub> quand<sub>i</sub> Z [<sub>YP</sub> [<sub>IP</sub> t<sub>j</sub>-SCL lui a téléphoné t<sub>i</sub> t<sub>i</sub>]<sub>k</sub> Y [<sub>FP</sub>  
 Jean<sub>j</sub> F [<sub>XP</sub> t<sub>i</sub> X t<sub>k</sub>]]]]

### 3.2.5. 문체 도치 구문의 주어 뒤에 출현하는 보충어

(108) a. Qu'a dit Jean à Marie?  
 b. ?Quand a parlé Jean à Marie?

(109) a. \*A qui a dit Jean tout cela?  
 b. \*Quand est devenu Jean célèbre?

위 예문들은 문체 도치 구문의 주어 뒤에 여러 보충어들이 출현하는 문장들이다. 이 때 제기되는 문체점은 (109)에서처럼 문체 도치 구문의 주어 뒤에 직접 목적어나 속사가 오면 비문인 반면, (108)에서처럼 간접 목적어가 오는 경우에는 용인 가능한 문장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해온 도출방법으로는, 결과적으로 (108a)의 어순이 아닌 (110b)의 어순과 같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예문의 문법성은 오히려 (108a)와 비교했을 때 덜 문법

적이다.

- (110) a. Jean a dit que à Marie ⇒ 1차 의문사 이동 ⇒  
que Jean a dit à Marie ⇒ 주어 인상 ⇒  
Jean que a dit à Marie ⇒ 나머지 IP 이동 ⇒  
a dit à Marie Jean que ⇒ 2차 의문사 이동 ⇒  
que a dit à Marie Jean
- b. ?Qu'a dit à Marie Jean?

한편 (108)이 보여주는 어순 V-Subject-Complement는 접속법의 문체 도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cf. Kampers-Mahn(1998)).

- (111) a. \*Il faut que le dise Jean à Marie.  
b. \*Je doute qu'ait parlé Jean à Marie.

똑같은 문체 도치 구문임에도 qu- 구문에서는 이 어순이 허용되고 접속법 구문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Kayne & Pollock은 (108a)의 경우 직접 목적어 que와 간접 목적어 à Marie는 하나의 성분, 즉 소절(small clause)<sup>18)</sup>을 구성하고 직접 목적어 que가 의문사 이동을 할 때 à Marie도 함께 대동 이동(pied-piping)<sup>19)</sup> 한다고 본다. (108a)의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8) 소절(small clause) : 명제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한정절이나 부정사절에 존재하는 INFL요소와 계사(copula; be동사)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결합된 주어와 술부의 한 쌍을 소절이라 한다.  
cf. 原口庄輔 · 中村捷, op.cit., p. 634.

19) 대동 이동(pied-piping) : Ross (1967)의 용어. wh이동이 적용될 때, wh뿐만 아니라, wh를 포함하는 보다 큰 NP나 PP 전체가 이동하는 현상을 대동이동이라 한다.  
cf. 原口庄輔 · 中村捷, op.cit., p. 519.

- (112) Jean a dit que à Marie ⇒  
 대동 이동을 포함한 1차 의문사 이동 ⇒  
 [que à Marie] Jean a dit ⇒ 주어 인상 ⇒  
 Jean [que à Marie] a dit ⇒ 나머지 IP 이동 ⇒  
 a dit Jean [que à Marie] ⇒  
 대동 이동을 포함하지 않은 2차 의문사 이동 ⇒  
 que a dit Jean à Marie

(108b)에 대해서도 quand과 à Marie가 소절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108b)가 좀 부자연스러운 것은 이 소절 구성이 전형적인 소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본다. (108b)의 도출은 (113)에서 시작하여 (112)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113) Jean a parlé [quand à Marie]

지금까지의 설명을 보면 (108)에서처럼 V-Subject-Complement 어순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의문사 대동 이동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접속법 구문에서는 의문사 이동이 없으므로 V-Subject-Complement 어순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제 직접 목적어를 살펴보겠다. 간접 목적어와는 반대로 문체 도치 구문의 주어가 직접 목적어 뒤에 오게 되면 비문이 된다는 것을 다음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다.

- (114) a. ?Qu'a donné à Marie Jean?  
 b. \*A qui a donné ce livre Jean?

이 두 예문에 대한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15) a. Jean a donné que à Marie ⇒ 1차 의문사 이동 ⇒  
que Jean a donné à Marie ⇒ 주어 인상 ⇒  
Jean que a donné à Marie ⇒ 주제화 ⇒  
à Marie Jean que a donné ⇒ 나머지 IP 이동 ⇒  
a donné à Marie Jean que ⇒ 2차 의문사 이동 ⇒ (114a)
- b. Jean a donné ce livre à qui ⇒ 1차 의문사 이동 ⇒  
à qui Jean a donné ce livre ⇒ 주어 인상 ⇒  
Jean à qui a donné ce livre ⇒ 주제화 ⇒  
ce livre Jean à qui a donné ⇒ 나머지 IP 이동 ⇒  
a donné ce livre Jean à qui ⇒ 2차 의문사 이동  
⇒ \*(114b)

위 도출 과정에는 주제화가 포함되어 있다. 앞에서 (101)과 관련하여 주어 인상은 주제어를 건널 수 없음을 논의했었다. 하지만 위 도출 과정에서는 주어 인상이 주제화보다 먼저 행해지기 때문에 주제화에 따른 문제가 제기 되지 않는다. 위 도출 과정의 또 다른 특징은 주제화를 필수적으로 가정한 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 사항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116) 만약 IP가 어휘 논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IP 전치는 불가능하다.

(IP preposing results in a violation if IP contains a lexical argument.)

이 가정이 주어졌을 때 도출 (115)에서처럼 나머지 IP 이동이 있기 전에 반드시 목적어가 주제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115b)의 도출 과정에서 무엇

때문에 (114b)가 비문인 것인가? 이것이 비문인 이유는 직접 목적어가 주제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117) \*Ce livre Jean a donné à Marie.

즉 (114b)가 비문인 이유는 가정 (116)과 목적어 주제화 불가 제약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이제 문체 도치가 가능한 또 다른 구문인 *ne-que* 구문을 살펴보겠다.

(118) Ne sont venus que Jean et Marie.

이 경우 문제는 직접 목적어 뒤에 주어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119) N'ont embrassé la jeune mariée que son père et ses frères.

이에 대해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랑스어에서 직접 목적어의 주제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ne-que* 구문의 *que*에 의해 주어가 강하게 초점화 됐을 경우에는 목적어 주제화가 허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119)의 도출은 다음과 같다.

(120) que son père et ses frères n'ont embrassé la jeune mariée ⇒

직접 목적어의 주제화 ⇒

la jeune mariée que son père et ses frères n'ont embrassé ⇒

나머지 IP 이동 ⇒ (119)

### 3.2.6. 결론 및 문제점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어의 문체 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 주어는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주어 접어(SCL)를 뒤에 남겨놓고, IP를 건너 높은 위치로 이동한다. 그리고 흔적을 포함하는 IP는 이동한 주어를 건너 왼쪽으로 이동한다.

둘째, 문체 도치는 qu- 환경과 접속법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완전히 용인 가능한 문장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직설법에서도 문체 도치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Kayne & Pollock(1978)에서 제안했었던 촉발자에 근거한 설명을 포기하고, 대신 (86)을 가정함으로써 문체 도치 구문을 설명한다.

(86) 문체 도치의 주어 인상은 IP 바로 위의 Spec-FP를 목표로 할 수 없다.  
(SI subject raising cannot target a Spec-FP immediately above IP.)

즉, (86)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문체 도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는 qu- 구문과 접속법 모두 너무 가까운 이동, 즉 무위 이동(vacuous movement)<sup>20)</sup>을

20) 무위 이동(vacuous movement) :

i) What do you wonder [CP who saw *t*]?

이 문장은 what이 wh섬(island)(CP) 속에서 적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가능성은 그다지 낮지 않다. 만약, who가 CP의 지정어로 이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 CP의 지정어 위치로 what이 이동할 수 있게 되어 하위인접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Chomsky(1986b)에 의하면, LF에서는 주어 위치에 있는 wh구가 C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고 생각해야 할 증거가 있다고 한다.

ii) \*How do you wonder [CP who fixed the car *t*]?

만약, who가 주어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면, how가 내포절의 지정어 위치에 남긴 중간흔적이 원래 위치의 흔적을 고유지배하므로, 이 의문문은 적격한 것으로 예측되나, 실제로는 비문이다. 그래서 LF에서 who가 내포문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이 이동에 의해서 통사부문에서 내포문의 지정어에 남겨진 how의 중간흔적은 소거되어, how의 원위치의 흔적이 고유지배되지 않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Chomsky는 i)과 ii)에 대한 관찰을 통합해서 <요소간에 선형순서를 바꾸지 않는 이동은 S구조에

하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문체 도치 허용 조건에 대한 좀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한다. 가정 (86)으로, 앞서 언급한 쟁점들 중 하나였던, 다른 여러 로 맨스어와 달리 프랑스어에서는 자유로운 문체 도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121) \*Est parti Jean.

즉, 위의 예문에서는 (86)에 따라 이동의 첫 단계인 주어의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셋째, 프랑스어의 문체 도치는 공 허사 주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슬란드어와 유사하게 quirky 주어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도 또한 공허사 위치를 지정했었던 Kayne & Pollock(1978)과 다른 점이다. 결국 이 논문에서는 EPP에 대한 쟁점들을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문체 도치 구문의 주어 DP는 Kayne(1972)의 “이중 접어(clitic doubling)”를 적용하여, 더 큰 DP의 핵인 SCL의 지정어 위치에서 시작하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il 부재 비인칭 구문에서도 EPP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프랑스어에서는 문체 도치 구문에서만 PP가 주어인 quirky 주어를 가질 수 있는데, 이 때 전치사 à는 EPP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문이 되지 않는 이유는, 위에서 제안한 SCL이 EPP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이다.

넷째, 문체 도치 구문에서 주어는 문장의 가장 오른쪽 끝에 오지만, qu-이동의 부수작용으로써 나타나는 보충어의 대동 이동 때문에, 주어 뒤에 보충어가 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qu- 환경의 문체 도치와 접속법의 문체 도치의 차이점을 설명해준다.

---

서 의무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무위이동가설을 제창하고 있다. 한편, LF에서는 요소 사이의 작용 역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S구조에서 기저 생성된 위치에 있는 wh구는, LF에서 CP의 지정어로 이동해야 한다.

cf. 原口庄輔 · 中村捷, op.cit., p. 740.

다섯째, 문체 도치의 주어 뒤에 보충어가 뒤따라 올 때, 이 보충어의 위치는 IP 이동 이전에 일어나는 주제화에 기인한다. 프랑스어에서는 이 주제화가 직접 목적어에는 적용될 수 없지만, ne-que 구문처럼 주어가 강하게 초점화 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이제 위의 주장들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 논문에서는 도치 주어가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주어 접어(SCL)를 뒤에 남겨놓고 IP를 건너 이동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 SCL이란 무엇이며, 이것은 왜 문체 도치 구문에서만 허용되는가? 그리고 이 논문에 의하면 문체 도치가 적용된 문장에서는 꼭 주어의 좌측 인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 좌측 인상을 함으로써 어떤 의미 차이가 있게 되는가? 또한 좌측 인상 후에는 IP의 나머지 이동이 발생한다. 나머지 이동은 왜 발생하는가?

이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문체 도치 구문의 이동을 살펴보면, 1차 의문사 이동⇒주어인상⇒IP 나머지 이동⇒2차 의문사 이동, 이렇게 네 번의 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IP 앞에 4개의 자리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 자리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게다가 왜 이렇게 이동하는지, 어느 자리에 무엇 때문에 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특히 의문사 같은 경우는 왜 두 번이나 이동하는가?

이 논문의 또 다른 주장을 살펴보면, 프랑스어의 문체 도치 구문에는 아이슬란드어와 유사하게 quirky 주어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어의 quirky 주어는 그것이 구조적으로 더 위로 이동할 때에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문체 도치가 아닌 경우, 즉 의문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만 예문 (92a)와 다른 문장들의 경우에도 역시 비문인데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92) a. \*[Au réexamen de quelle loi] a été procédé?

또 다른 문제점은 주제화와 관련된 것이다. (101), (106)등의 예문을 근거로 주제어는 이동에 대한 장벽이라고 했었다. 한편 (115)의 도출 과정에서는 주어 인상의 경우에만 주제어가 장벽이 되고 나머지 IP 이동이나 2차 의문사 이동에는 장벽이 안 된다고 했다. 제기되는 질문은 왜 나머지 IP 이동과 2차 의문사 이동에는 주제어가 장벽이 안 되는가 이다.

이러한 문제들과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제 확장된 CP 영역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Poletto & Pollock(2004)를 살펴보겠다.

### 3.3. Poletto & Pollock(2004)<sup>21)</sup>

이 논문은 여러 로맨스어의 qu-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절 외곽 구조(the fin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에 관한 연구이다. 이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에 전제된 두 가지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로맨스어에서 나타나는 qu-요소의 분포는 서로 상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 외곽 구조는 동일하다. 둘째, 보편 문법에서는 비가시적 이동(covert syntactic movement)들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기본 가정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이동은 여러 비가시적 이동들과 핵 이동 분석들을 대신하여 여러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으며, 로맨스어들의 qu- 의문문의 통사에 대한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 논문의 연구는 지금까지 살펴본 문체 도치 분석에 좀 더 타당성을 실어준다. 특히, 3.2.6.에서 살펴보았던 Kayne & Pollock(2001)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문체 도치 구문의 주어가 좌측인 상을 하는 것과 IP가 나머지 이동을 하는 것은 단지 문체 도치의 어순을 설

---

21) 3.3.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Poletto & Pollock (2004)에서 사용한 예문들을 그대로 인용함을 밝혀둔다.

명하기 위한 가정에 불과했으나, 이 논문에서는 위의 두 가지 이동에 대한 분석과 그 이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3.3.1. 확장된 CP 영역

이 논문에서는 왼쪽 외곽의 여러 층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계층 순서를 가진 절 구조를 제안한다.

(122) [<sub>Op2P</sub> Op2 [<sub>ForceP</sub> Force [<sub>GroundP</sub> Ground [<sub>TopicP</sub> Topic [<sub>Op1P</sub> Op1 IP]]]]]

여기서 Op1과 Op2는 서로 다른 유형의 qu-요소들을 위한 자리이다. 그리고 Op1과 Op2는 Kayne & Pollock(2001)에서 가정했던 1차 의문사 이동과 2차 의문사 이동을 위한 자리이다. qu-요소를 위한 자리가 두 개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Munaro and Obernauer(1999)에서는 Bellunese<sup>22)</sup>의 이중 의문사 구조와 Monnese<sup>23)</sup>의 이중 의문사 구조를 제시한다.

(123) a. *Ha-lo fat che?* (Bellunese)

has he done what

'What did he do?'

b. *Cossa ha-lo fat che?* (Bellunese)

what has he done what

(124) a. *Ch'et fat?* (Monnese)

22) Bellunese어는 1183년에서 1196년 사이의 Belluno 지방의 역사 속에 기록된 중세 라틴어의 일부분에 속하는 이탈리아 방언이다. 이탈리아 방언들 안에서 가장 일찍 시일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대략 1198년도 경의 문헌이다. 그것은 Belluno 지방의 Museo 시립 박물관에서 Catalogo de Vescovi (bishops' catalogue)안에 있는 원고 속에 보존되어 있다.

23) Monneses어는 북부 이탈리아의 방언들 중 하나이다.

What have-you done

'What have you done?'

b. *Ch'et hat què?* (Monnese)

what have you done what

원래 로맨스어에는 (123b)와 (124b)처럼 qu-를 위한 자리가 두 개가 있다. (123a)와 (124a)처럼 qu-요소가 문장 내에 한 개만 존재할 경우, 나머지 한 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라고 보는데, 이를 제한자(restrictor)라고 부른다. 반대로 (123b)와 (124b)처럼 두 개의 qu-요소들이 모두 문장 내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것들은 Spec-Op1P와 Spec-Op2P에 나타난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로맨스어들은 항상 qu-를 위한 두 개의 자리를 갖고 있으며, qu-가 한 개인 예문들 (123a)와 (124a)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고 본다.

(125) a. *Rest. ha-lo fat che?* (Bellunese)

b. *Ch'et fat Rest?* (Monnese)

이제 (122)의 구조에서 설정된 Force를 살펴보자. Force는 문장의 유형을 의미한다. 문장 내에서 Force 자질, 예를 들어 [+question]을 가지고 있는 구는 ForceP의 지정어 자리로 유인된 후 자질점검이 이루어진다. 문체 도치 구문에서는 qu-요소가 Force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orce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여 [+question]을 점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Op1P, ForceP, Op2P로 의문사 이동이 여러 번 발생하게 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사실로 왜 문체 도치가 qu-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Force 자질을 점검하는 구가 있을 때에만, 점검 이론의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qu-가 바로 점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다.

- (126) a. Où est allé Jean?  
b. À qui a téléphoné Jean?

- (127) a. \*À Paris est allé Jean?  
b. \*A téléphoné Jean?

위의 예문들 중, qu-요소가 없고 주제화된 요소가 문장 앞에 있는 (127)은 문체 도치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주제화된 요소는 qu-와 달리 Force 자질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상들을 살펴보면 모든 qu-가 Force 자질 점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Kayne & Pollock(2001)에서도 다뤄졌던 pourquoi와 en quel sens는 Force 자질, 즉 [+question]을 점검할 수 없는 대표적인 qu-요소이다.<sup>24)</sup>

TopicP는 [+topic]을 가진 구를 유인하는데, 프랑스어의 문체 도치 구문에서는 도치 주어가 Topi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GroundP를 살펴보자. 이 논문에서는 문체 도치 구문에서 나머지 이동을 하는 IP가 배경 자질인 [+groun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 
- 24) i) ?\*Pourquoi parle Pierre ?  
ii) ?\*En quel sens parlent les fleurs ?

위의 예문들은 추상적 동사가 있는 다음의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 i) ?\*Pourquoi [on dit que] parle Pierre ?  
ii) ?\*En quel sens [on peut dire que] parlent les fleurs ?

Rizzi(1990)에서는 pourquoi와 en quel sens가 IP 외부에서 병합된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위의 예문들은 직설법이기 때문에, 또 qu-요소가 IP 외부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문체 도치가 불가능하다고 분석된다.

cf. Rizzi, L. (1990). *Relativized Minimality*. MIT Press, Cambridge, Mass.

GroundP를 목표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정리하면, 위에서 제시한 확장된 CP 영역의 다섯 개의 기능범주들, 그리고 각 기능범주들로 유인되는 요소들을 종합하면, 다음 문체 도치 구문 (128)은 (129)와 같은 이동 분석을 갖는다.

(128) Où est allé Jean?

(129) Input : [Jean est allé où]

- a. Op1과 IP의 병합, 의문사 이동:  $[_{Op1P} \text{ où}_i \text{ Op1 } [_{IP} \text{ Jean est allé } t_i]]$
- b. TopP와 Op1P의 병합, Spec-TopP로 Jean 이동:  
 $[_{TopP} [\text{Jean}]_j \text{ Top } [_{Op1P} \text{ où}_i \text{ Op1 } [_{IP} t_j \text{ est allé } t_i]]]$
- c. GroundP와 TopP의 병합, Spec-GP로 IP 나머지 이동:  
 $[_{GroundP} [_{IP} t_j \text{ est allé } t_i]_k \text{ G } [_{TopP} [\text{Jean}]_j \text{ Top } [_{Op1P} \text{ où}_i \text{ Op1 } [_{IP} t_k]]]]]$
- d. ForceP와 GroundP 병합, Spec-ForceP로 의문사 이동:  
 $[_{ForceP} \text{ Où}_i \text{ Force } [_{GroundP} [_{IP} t_j \text{ est allé } t_i]_k \text{ G } [_{TopP} [\text{Jean}]_j \text{ Top } [_{Op1P} t_i \text{ Op1 } [_{IP} t_k]]]]]]]$
- e. Op2P와 ForceP의 병합, Spec-Op2P로 의문사 이동:  
 $[_{Op2P} \text{ Où}_i \text{ Op2 } [_{ForceP} t_i \text{ Force } [_{GroundP} [_{IP} t_j \text{ est allé } t_i]_k \text{ G } [_{TopP} [\text{Jean}]_j \text{ Top } [_{Op1P} t_i \text{ Op1 } [_{IP} t_k]]]]]]]]]$

### 3.3.2. GroundP와 IP 나머지 이동

이 논문에서는 GroundP의 사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GroundP는 로맨스어 의문문들의 왼쪽 외곽에 의무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GroundP는 그것의 지정어 자리에 적절하게 표시된 성분을 유인해야만 한다.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도출을 얻을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문체 도치 구문에서 GroundP의 지정어 자리로 유인되는 것은 나머지 IP라고 보고 있다.

Poletto(2000)과 Beninca' & Poletto(1999)에 의하면, 왼쪽 외곽 영역은 두 가지 하부 구조로 구분되는데, 하위 구조에서는 신 정보(new information)가 표현되고, 상위 구조에서는 구 정보(known information)가 표현된다고 본다. 이 같은 주장을 활용하여 문체 도치 구문의 IP 나머지 이동을 살펴보겠다.

IP의 qu-요소 이외의 부분은 전제된 지식, 즉 구 정보를 표시한다는 개념이 Katz & Postal(1964)에서부터 당연시되어져왔다. 예를 들어, *who did you see?*는 '네가 누군가를 보았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 관점에서 전제 요소, 즉 의문사가 배제된 IP가 Ground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여 [+ground] 자질을 점검한다고 본다. 이 이동이 바로 문체 도치 구문에서의 나머지 IP 이동이다. 이러한 문체 도치의 IP 나머지 이동의 해석은 예문 (130)이 비문이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130) a. \*Je ne sais pas si a téléphoné Marie.  
b. \*A téléphoné Marie?

위 예문들은 전제 의문절의 경우 문체 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체 도치는 나머지 IP 이동을 필수적으로 연루시킨다. 그리고 이 나머지 IP 이동의 동기는 GroundP의 [+ground] 자질을 점검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제 의문절의 경우는 IP 자체가 질문의 내용으로 전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ground] 자질을 지니지 못하고, 그 결과 GroundP의 지정어로의 나머지 IP 이동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 결과 문체 도치가 불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나머지 IP가 GroundP의 지정어 자리로 유인된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의 가정을 덧붙인다. [+ground] 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Ground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는 IP는, IP 자체뿐만 아니라 IP 속의 모든 요소들이

[+ground]를 가진다고 본다. 이 때 모든 요소들이란, 접어대명사, 변형 양화사, 관용어구를 말한다.<sup>25)</sup> 이 가정은 Kayne & Pollock(2001)에 나오는 다음의 원리((131)로 반복)와 일맥상통한다.

(131) 만약 IP가 어휘 논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IP 전치는 불가능하다.

(IP preposing results in a violation if IP contains a lexical argument.) (= Kayne & Pollock(2001)의 (169))

이 가정은 문체 도치 구문에서 왜 도치 주어가 IP의 밖으로 이동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제공해준다. 문체 도치의 도치 주어는 언제나 접어대명사, 양화사, 또는 관용어구가 아닌 명사구만이 가능하다. 이런 명사구는 [+ground] 자질을 지닐 수 없으므로 문체 도치가 가능하려면, 따라서 나머지 IP 이동이 가능하려면 이 명사구는 사전에 IP 밖으로 이동해야만 한다. 같은 이유로 목적어 위치에 [+ground] 자질을 지닐 수 없는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경우 다음 예문에 보여주듯이 문체 도치가 불가능하다.

(132) \*À qui a donné ce livre Jean?

25) Poletto & Pollock(1999)에서, 이에 대한 예문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i) a. Où il va ?  
b. Qui t'as vu ?
  
- ii) a. ?\*Où Yves va ?  
b. ?\*Qui Paul a vu ?

예문 i)은 대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ground]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모든 IP의 요소들이 GP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문 ii)는 일반명사 주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어 자체가 [+ground]를 가질 수 없다. 이 논문의 주장에 따라, 일반명사 주어인 Yves와 Paul은 왼쪽 절 구조에서 TopP로 유인되기 때문에, 계층 순서에 따라 GroundP로 이동한 IP보다 구조적으로 위에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예문 ii)는 비문이 된다.

cf. Poletto, C., and Pollock, J.-Y. (1999). "On the Left Periphery of Romance *Wh*-Questions." Talk delivered at the Workshop on the Cartography of Functional Projections, Pontignano, November 1999.

즉, (132)가 비문인 이유는 목적어인 *ce livre*가 [+ground]를 가지지 못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왼쪽 외곽의 [+ground]의 자질 점검에 실패하면서 도출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 3.3.3. 결론 및 문제점

프랑스어의 문체 도치 구문의 도출순서는 “1차 의문사 이동→주어 이동→나머지 IP 이동→2차 의문사 이동→3차 의문사 이동”이다. 이 도출에서 각 요소들은 IP 외부, 즉 CP 영역으로 이동하는데, 그것들이 이동하는 이유와 이동 후의 도착 지점은 다음의 확장된 CP 영역의 계층순서로 설명할 수 있다.

(122) [<sub>Op2P</sub> Op2 [<sub>ForceP</sub> Force [<sub>GroundP</sub> Ground [<sub>TopicP</sub> Topic [<sub>Op1P</sub> Op1 IP]]]]]

우선 각 요소들의 이동 이유는 점검 이론으로 설명한다. CP 영역에는 Op2P, ForceP, GroundP, Op1P, TopicP, 이렇게 다섯 개의 기능범주가 존재하며, 각 범주들은 자질 점검을 위해 점검 능력을 가진 요소들을 지정어 자리로 유인한다.

가장 먼저 IP와 Op1P가 병합된 후, *qu-*는 Op1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 그리고 주제(topic)의 해석을 받는 주어는 [+topic] 점검을 위해 TopicP의 지정어 위치로 유인된다. 그 후 배경, 즉 전제된 정보의 의미를 갖는 나머지 IP는 [+ground]를 점검하기 위해 Ground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며, 문장 유형을 결정짓는 Force 자질을 점검할 수 있는 *qu-*가 Force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qu-*를 위한 자리 중 하나인 Op2P의 지정어 위치로 다시 한 번 의문사 이동이 일어난다.

이 논문을 통해, 3.2. 논문의 가장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였던, 각 요소들의 이동 이유와 도착 지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 논문에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우선 이 논문은 로맨스어의 *qu-* 의문문들이 가지고 있는 왼쪽 외곽의 CP 영역 구조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접속법이나 직설법의 문체 도치 구문은 어떻게 이 분석에 통합될 수 있는가?

또한 이 논문에 의하면 문체 도치 구문은 다섯 번의 이동(1차 의문사 이동→주어 이동→IP 나머지 이동→2차 의문사 이동→3차 의문사 이동)이 일어난 후 도출된다. 이 중 의문사는 세 번이나 이동하게 되며, 심지어 마지막 이동 단계에서는 의문사가 ForceP에서 Op2P로 무위 이동(vacuous movement)을 가정하고 있는데 무위 이동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각에서는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음 4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 4. 문제점 및 해결안

프랑스어의 문체 도치 현상의 통사적 특성들에 대한 분석은 Pollock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되어왔다. 이러한 연구의 시도는 변형문법의 테두리 내에서 언어학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현상에 대해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주었고, 그 결과 Pollock의 주장들은 프랑스어의 문체 도치 현상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끌어준다. 그러나 Pollock의 분석에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분석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보았던 선행 연구들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 연구들이 제시한 분석으로 2장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문체 도치 구문들에 대한 현상을 점검하여 한편으로는 이론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현상들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 4.1. 선행 연구들의 문제점 및 해결안

Kayne & Pollock(1978)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촉발자의 설정”이었다. 문체 도치는 촉발자(qu-/+F)에 의해 일어나며, 문체 도치가 허용되는 구문은 qu- 구문과 접속법 구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qu-와 접속법의 보문소 +F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으며, 따라서 왜 이들이 문체 도치의 촉발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근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Kayne & Pollock(2001)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즉 촉발자의 설정을 삭제하고 (86)의 설정으로 문체 도치 구문을 설명한다.

(86) 문체 도치의 주어 인상은 IP 바로 위의 Spec-FP를 목표로 할 수 없다.  
(SI subject raising cannot target a Spec-FP immediately above IP.)

즉 (86)의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모든 구문에서는 문체 도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qu- 구문과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 이동이 먼저 일어난 후, 그 의문사를 건너서 주어 인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86)을 준수하여 문체 도치가 가능하게 되고, 접속법에서는 종속절의 주어가 좌측인상을 할 때 주절 요소를 건너가기 때문에 (86)을 준수하여 역시 문체 도치가 항상 가능하다.

게다가 이 설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은 바로 IP 단계에서의 문체 도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Est parti Jean. 과 같은 구문에서는 문체 도치가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86)에 따라 이동의 첫 단계인 주어의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이렇게 Kayne & Pollock(2001)은 선행 연구인 Kayne & Pollock(1978)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은 분석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이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주어는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주어 접어(SCL)를 뒤에 남겨놓고, IP를 건너 높은 위치로 이동한다. 그리고 흔적을 포함하는 IP는 이동한 주어를 건너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SCL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SCL은 정확히 무엇이며, 그것은 왜 문체 도치 구문에서만 출현이 허용되는가?

두 번째로 제기되는 문제는 이동에 대한 문제다. 이 논문에 의하면 문체 도치가 적용된 문장에서는 꼭 주어의 좌측 인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 좌측 인상을 함으로써 어떤 의미 차이가 있게 되는가? 또한 좌측 인상 후에는 나머지 IP 이동이 발생한다. 이 나머지 IP 이동의

발생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문체 도치 구문의 이동을 살펴보면, 1차 의문사 이동⇒주어인상⇒나머지 IP 이동⇒2차 의문사 이동, 이렇게 네 가지 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IP 앞에 4개의 자리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 자리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게다가 왜 이렇게 이동하는지, 어느 자리에 무엇 때문에 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특히 의문사 같은 경우는 왜 두 번이나 이동하는가?

이동에 관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Poletto & Pollock(2004)에서 해결하고 있다. Poletto & Pollock(2004)의 가장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은 계층 순서를 가진 확장된 CP 영역 구조이다.

(122) [<sub>Op2P</sub> Op2 [<sub>ForceP</sub> Force][<sub>GroundP</sub> Ground [<sub>TopicP</sub> Topic [<sub>Op1P</sub> Op1 IP]]]]

이 구조와 함께 Kayne & Pollock(2001)에서 제기된 이동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우선 주어가 좌측 인상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체 도치 구문에서 주어는 [+topic]을 갖고 있기 때문에 IP 외부, 즉 TopicP로 자질 점검을 위해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좌측 인상이 일어나게 되며, 이 주어는 주체의 해석을 받게 됨으로써 의미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그 이후에, [+ground]를 가지고 있는 IP는 주어가 이동한 후 남은 흔적과 함께 GroundP로 유인되어, 이동한 후 자질 점검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나머지 IP가 이동하는 이유이다.

Poletto & Pollock(2004)에 의하면 로맨스어에는 qu-를 위한 자리로 Op1과 Op2가 존재한다. 그리고 문체 도치 구문에서는 qu- 스스로가 문장 유형을 결정하는 Force 자질을 점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 순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33) Op1P로 1차 의문사 이동  $\Rightarrow$  TopP로 주어 이동  $\Rightarrow$  GroundP로 IP 나머지 이동  $\Rightarrow$  ForceP로 2차 의문사 이동  $\Rightarrow$  Op2P로 3차 의문사 이동

Kayne & Pollock(2001)과 달리 Poletto & Pollock(2004)에서는 위에서 보듯이 오히려 의문사 이동이 세 번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Kayne & Pollock(2001)에서는 프랑스어에 quirky 주어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문체 도치 구문에서처럼 PP주어가 위쪽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문체 도치 구문이 아닌 경우에 PP주어가 있을 경우 비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Kayne & Pollock(2001)에서는 문체 도치의 주어 뒤에 보충어가 뒤따라올 때, 이 보충어의 위치는 IP 이동 이전에 일어나는 주제화에 기인한다고 본다. 주제어는 의문사보다 더 큰 섬을 형성하기 때문에 주어 인상을 막는다. 즉 주제화가 먼저 일어나는 경우 문체 도치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의문사 주어도 주제어를 건너가지 못함을 보여주면서 주제어가 의문사보다 더 강한 섬을 형성한다고 본다. 하지만 왜 주제어가 섬을 형성하는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Kayne & Pollock(2001)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Poletto & Pollock(2004) 역시 또 다른 문제점들을 포함한다. 이 논문의 핵심은 확장된 CP 영역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계층 순서를 제시한 것이다.

(122) [<sub>Op2P</sub> Op2 [<sub>ForceP</sub> Force]][<sub>GroundP</sub> Ground [<sub>TopicP</sub> Topic [<sub>Op1P</sub> Op1 IP]]]

CP 영역 내에 있는 위 기능범주들이 자질점검을 위해 관련된 요소들을 유인하여 이동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한 예로서 (134)에 대한 도출 방법은 (135)와 같다.

(134) Quand est partie Marie ?

(135) Input : [Marie est partie quand]

a. Op1과 IP 병합, 의문사 이동:

[<sub>Op1P</sub> Quand<sub>i</sub> Op1 [<sub>IP</sub> Marie est partie t<sub>i</sub>]]

b. TopP와 Op1P 병합, Spec-TopP로 Jean 이동:

[<sub>TopP</sub> [Marie]<sub>j</sub> Top [<sub>Op1P</sub> quand<sub>i</sub> Op1 [<sub>IP</sub> t<sub>j</sub> est partie t<sub>i</sub>]]]

c. G와 TopP 병합, Spec-GP로 IP 나머지 이동:

[<sub>GroundP</sub> [<sub>IP</sub> t<sub>j</sub> est partie t<sub>i</sub>]<sub>k</sub> G [<sub>TopP</sub> [Marie]<sub>j</sub> Top [<sub>Op1P</sub> quand<sub>i</sub> Op1 [<sub>IP</sub> t<sub>k</sub>]]]]]

d. Force와 GP 병합, Spec-ForceP로 의문사 이동:

[<sub>ForceP</sub> Quand<sub>i</sub> Force [<sub>GroundP</sub> [<sub>IP</sub> t<sub>j</sub> est partie t<sub>i</sub>]<sub>k</sub> G [<sub>TopP</sub> [Marie]<sub>j</sub> Top [<sub>Op1P</sub> t<sub>i</sub> Op1 [<sub>IP</sub> t<sub>k</sub>]]]]]

e. Op2P와 ForceP 병합, Spec-Op2P로 의문사 이동:

[<sub>Op2P</sub> Quand<sub>i</sub> Op2 [<sub>ForceP</sub> t<sub>i</sub> Force [<sub>GroundP</sub> [<sub>IP</sub> t<sub>j</sub> est partie t<sub>i</sub>]<sub>k</sub> G [<sub>TopP</sub> [Marie]<sub>j</sub> Top [<sub>Op1P</sub> t<sub>i</sub> Op1 [<sub>IP</sub> t<sub>k</sub>]]]]]]]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로맨스어의 qu- 의문문들이 가지고 있는 왼쪽 외곽의 CP 영역 구조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체 도치가 나타나는 다른 구문들, 예를 들어 접속범이나 직설법 같은 구문들의 분석을 통합하지 못한다. 또한 qu-요소가 있는 문체 도치 구문의 도출 순서는 “1차 의문사 이동⇒주어 이동⇒IP 나머지 이동⇒2차 의문사 이동⇒3차 의문사 이동”이라고 보는데, 이 때 마지막 의문사 이동은 무위 이동으로 이 마지막 의문사 이동이 실제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 4.2. 선행 연구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문체 도치 구문에 대한 분석 시도

2장에서 살펴본 문체 도치 현상 10개의 구문들 중, 직접부분의문문, 간접부분의문문, 관계절, 감탄문, 접속법, ne-que 구문은 Kayne & Pollock(2001)로 분석 가능하다.

그 외의 문체 도치 구문들, 즉 상황보어나 상황부사가 문두에 오는 경우 (19), 속사가 문두에 오는 경우 (20), 삽입절 (21)이나 분열문 (23), (24)와 같은 예문들은 앞의 이론들에서 분석 되지 않은 구문들이다. 여기서는 이 구문들이 Kayne & Pollock(2001)과 Poletto & Pollock(2004)의 이론에 의거했을 때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편의상 문제의 예문들을 아래 반복하겠다.

##### (19) 상황보어나 상황부사가 문두에 오는 경우

- a. Enfin vient l'armée des chèvres et des moutons.
- b. Au fond du jardin est le couvent aux fenêtres ouvertes.
- c. A Jean incombe la tâche de fermer la maison pour l'hiver.

##### (20) 속사가 문두에 오는 경우

- a. Grande fût sa surprise.
- b. Rares sont les véritables amis.
- c. Tels sont ses mérites.

##### (21) 삽입절

- a. 《L'argent, disait ma mère, ne fait pas le bonheur》
- b. 《Voyagerons-nous en avion ou en bateau?》 demande Pierre.

(23-24) 분열문

- a. C'est mon stylo qu'a volé Luc.
- b. C'est à Jean qu'a téléphoné ton ami.

먼저 분열문의 경우를 보자. 분열문의 경우는 공연산자(null operator)를 포함하는 관계절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위 예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36) C'est mon stylo [<sub>CP</sub> Op<sub>i</sub> que [<sub>IP</sub> a volé t<sub>i</sub> Luc]]

위 구조에서 종속절이 공연산자를 포함하는 관계절이므로 당연히 관계절 안에서 문체도치를 기대하게 된다.

다음으로 상황보어 또는 속사가 문두에 오는 경우를 보자. 이 경우 어순은 다음과 같다.

(137) 상황보어/속사 - 동사 - 도치주어

Kayne & Pollock(2001)에 따르면 위 어순은 다음과 같은 도출 과정을 겪는다. (19a)의 예를 대표로 살펴보겠다.

(138) l'armée des chèvres et des moutons-SCL vient enfin. ⇒

1차 상황보어 이동 ⇒ enfin<sub>i</sub> X [<sub>IP</sub> l'armée des chèvres et des moutons-SCL vient t<sub>i</sub>] ⇒ 주어 인상 ⇒

l'armée des chèvres et des moutons<sub>j</sub> F [<sub>XP</sub> enfin<sub>i</sub> X [<sub>IP</sub> t<sub>j</sub>-SCL vient t<sub>i</sub>]] ⇒ 나머지 IP 이동 ⇒

[<sub>IP</sub> t<sub>j</sub>-SCL vient t<sub>i</sub>]<sub>k</sub> Y [<sub>FP</sub> l'armée des chèvres et des moutons]<sub>j</sub> F [<sub>XP</sub> enfin<sub>i</sub> X t<sub>k</sub>]] ⇒ 2차 상황보어 이동 ⇒  
 enfin<sub>i</sub> Z [<sub>YP</sub> [<sub>IP</sub> t<sub>j</sub>-SCL vient t<sub>i</sub>]<sub>k</sub> Y [<sub>FP</sub> l'armée des chèvres et des moutons]<sub>j</sub> F [<sub>XP</sub> t<sub>i</sub> X t<sub>k</sub>]]]

위 도출 과정 중 IP 상위 요소들의 도입 과정만을 Poletto & Pollock(2004)에서 제시된 문장외곽 구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39) [<sub>Op2P</sub> enfin<sub>i</sub> Op2 [<sub>ForceP</sub> Force [<sub>GroundP</sub> [<sub>IP</sub> t<sub>j</sub>-SCL vient t<sub>i</sub>]<sub>k</sub> Ground [<sub>TopicP</sub> l'armée des chèvres et des moutons]<sub>j</sub> Topic [<sub>Op1P</sub> t<sub>i</sub> Op1 t<sub>k</sub>]]]]]

위 구조는 의문사 이동에 따른 문체 도치 구조와 대동소이하다. 유일한 차이점은 의문사가 Op1P, ForceP, Op2P로 세 번 이동한 반면 상황보어 enfin은 Op1P와 Op2P로 두 번만 이동한다. 그 이유는 의문사의 경우는 분명 의문문이라는 문장 유형을 지적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ForceP로의 이동이 필수적이겠지만 enfin은 문장 유형과 관련이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ForceP로 이동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37)의 어순이 도출되려면 구조 (139)에서 보듯이 상황보어 또는 속사가 Op1P와 Op2P로 이동하여야 한다. 한편, Op1P와 Op2P는 의문사 이동을 위해 설정된 요소이다. 그렇다면 상황보어 또는 속사가 의문사와 어떤 공통점이 있기에 의문사를 위해 설정된 Op1P와 Op2P로 이동한다고 할 수 있는가? Grevisse(1980:198)에 의하면 속사가 문두에 놓이는 문체 도치 구문에서 속사의 의미가 강조된다고 하였다. 어쩌면 상황보어가 문두에 놓이는 문체 도치 구문에서도 상황보어의 의미가 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문체 도치 구문에서 문두에 놓이는 상황보어와 속사는 강조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의문사의 경우도 강조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의문사는 어떤 주어진 집합의 원소들 중 문제가 되는 것이 어느 것인가를 묻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집합의 다른 원소를 배제하고 어느 하나의 선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강조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의문사와 또 한편으로는 문체 도치 구문에서 문두에 놓이는 상황보어 또는 속사가 공히 초점 해석을 지닌다고 보겠다.

그렇다면 Op1P과 Op2P 중 어느 하나가 초점 해석과 관련된 요소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럴 가능성은 충분하다. 초점은 발화상황과 관련된 사항인데 흔히 발화상황과 관련된 요소는 문장 외곽에 위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초점 해석과 관련 있는 FocP는 일반적으로 문장 외곽 위치에 설정된다. 그렇다면 Op1P과 Op2P 중 어느 것이 초점 요소와 관련된 것인가?

Rizzi(1997: 297)은 문장외곽 구조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140) [<sub>ForceP</sub> Force [<sub>TopP</sub> Top [<sub>FocP</sub> Foc [<sub>TopP</sub> Top [<sub>FinP</sub> Fin IP]]]]]

이 Rizzi(1997)의 문장외곽 구조를 Poletto & Pollock(2004)의 문장외곽 구조인 (139)에 대입시켜 보자. (140)에서 초점 요소인 FocP는 ForceP보다 밑에 있다. 한편 (140)에서 Op2P는 ForceP 위에 있고 Op1P는 ForceP 아래에 있다. 그렇다면 FocP는 Op2P가 아니라 Op1P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한 가지 문제점은 (139)에서는 Op1P가 IP 바로 상위에 있는 요소인데 (140)에서는 FocP가 IP 바로 상위에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39)에서는 (140)의 하위 TopP와 FinP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우리는 Poletto & Pollock(2004)의 Op1P는 Rizzi(1997)의 FocP라고 보겠다. 즉, 문체도치 구문에서 문두에 오는 상황보어 또는 속사는 1차적으로 FocP로 이동한다고 보겠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37)의 어순을 도출하려면 Op1P로 이동한 상황보어 또는 속사가 Op2P로 이동해야 한다. 의문사의 경우 이 이동은 제한자(restrictor) 자질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보어 또는 속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이 2차 이동을 촉발시키는 자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 질문은 Poletto & Pollock(2004)에게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남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삽입절의 경우를 보자. 삽입절 구문에서 인용 요소는 강조의 해석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삽입절의 경우도 상황보어 또는 속사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문 (21b)의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141) 《Voyagerons-nous en avion ou en bateau?》 demande Pierre. ⇒  
 1차 인용구 이동 ⇒ 《Voyagerons-nous en avion ou en bateau?》<sub>i</sub>  
 X [<sub>IP</sub> Pierre-SCL demande t<sub>i</sub>] ⇒ 주어 인상 ⇒  
 Pierre<sub>j</sub> F [<sub>XP</sub> 《Voyagerons-nous en avion ou en bateau?》<sub>i</sub> X [<sub>IP</sub>  
 t<sub>j</sub>-SCL demande t<sub>i</sub>] ⇒ 나머지 IP 이동 ⇒  
 [<sub>IP</sub> t<sub>j</sub>-SCL demande t<sub>i</sub>]<sub>k</sub> Y [<sub>FP</sub> Pierre<sub>j</sub> F [<sub>XP</sub> 《Voyagerons-nous en  
 avion ou en bateau?》<sub>i</sub> X t<sub>k</sub>]] ⇒ 2차 인용구 이동 ⇒  
 《Voyagerons-nous en avion ou en bateau?》<sub>i</sub> Z [<sub>YP</sub> [<sub>IP</sub> t<sub>j</sub>-SCL  
 demande t<sub>i</sub>]<sub>k</sub> Y [<sub>FP</sub> Pierre<sub>j</sub> F [<sub>XP</sub> t<sub>i</sub> X t<sub>k</sub>]]]

삽입절의 경우도 상황보어/속사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2차 이동을 촉발시키는 자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이 질문은 Poletto & Pollock(2004)의 문제점이다.

이 문제점과 더불어 삽입절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21a)에서처럼 삽입절의 경우 인용구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 문두에 나타나고 나머지는 삽입

절 뒤에 남아 있을 수 있다.

(21) a. 《L'argent, disait ma mère, ne fait pas le bonheur》

물론 인용구의 한 부분만 문장 앞으로 이동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결과하는 어순은 (21a)와 같지 않고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142) [<sub>Op2P</sub> L'argent<sub>i</sub> Op2 [<sub>ForceP</sub> Force [<sub>GroundP</sub> [<sub>IP</sub> t<sub>j</sub>-SCL disait 《t<sub>i</sub> ne fait pas le bonheur》 ]<sub>k</sub> Ground [<sub>TopicP</sub> ma mère<sub>j</sub> Topic [<sub>Op1P</sub> t<sub>i</sub> Op1 t<sub>k</sub>]]]]

(142)의 어순이 (21a)의 어순과 달라진 이유는 인용구의 나머지 부분인 ne fait pas le bonheur가 나머지 IP 이동으로 도치 주어를 건너 이동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기되는 문제는 (21a)에서처럼 인용구가 서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경우 그 어순을 어떻게 도출시킬 수 있느냐이다. 이것 또한 Kayne & Pollock(2001)과 Poletto & Pollock(2004)의 문제점이다.

## 5.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은 프랑스어의 문체 도치 현상들과 그에 대한 쟁점들을 정리하고, Jean-Yves Pollock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도입 부분에서 논의했듯이 문체 도치에 대한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문체 도치 구문에서 EPP는 어떻게 만족되는가? 왜 프랑스어의 문체 도치는 다른 로맨스어와 비교했을 때 보다 제약적인가? 문체 도치 구문의 도치 주어는 구조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가? 도치 주어는 기저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가? 이동했다면, 그 위치는 어디이고, 이동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검토한 세 개의 논문인 Kayne & Pollock(1978), Kayne & Pollock(2001), Poletto & Pollock(2004)은 문체 도치 구문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즉 도치 주어의 구조적 위치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제안 및 증거들을 점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Kayne & Pollock(1978)에서는 주어 위치에서 절 뒤쪽으로 NP 이동을 한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구조적 위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Kayne & Pollock(2001)은 보다 구체적으로 IP 상위의 기능 범주 지정어 위치라고 주장하고 그 증거들을 제시하지만 이 기능 범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주인지는 지적하지 않는다. Poletto & Pollock(2004)에서는 이 기능 범주가 TopP임을 분명히 하고 그 외 문체 도치 구문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의문사 이동 및 나머지 IP 이동을 위한 기능 범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적이다.

문체 도치 구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문체 도치 현상을 보여 주는 여러 가지 구문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포착할 것인가이다. 특히 문체가 되는 구문은 의문사 구문과 접속법 구문이다. 왜냐하면 이 두 구문은 어떤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ayne & Pollock(1978)에서는 NP 이동을 하고 난 후의 공범주가 의문사

자질 또는 접속법 자질에 의해 인허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한다. 하지만 왜 이 공범주가 이들 자질에 의해 인허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논의하고 않는다는 점에서 단순히 이 두 구문에서 문체 도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술할 뿐 왜 그런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한편, Kayne & Pollock(2001)에서는 “문체 도치의 주어 인상은 IP 바로 위의 Spec-FP를 목표로 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왜 문체 도치 현상이 의문사 의문문과 접속법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즉, 의문사 구문에서는 의문사 이동이 먼저 행해짐으로써, 그리고 접속법 구문에서는 주절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서, 주어 인상이 무위 이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구문의 공통점을 근거로 두 구문에서의 문체 도치 현상을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Kayne & Pollock(2001)은 문체 도치 현상 연구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Poletto & Pollock(2004)은 의문사 구문의 문체 도치에 대한 분석만 제시할 뿐 접속법 구문의 문체 도치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결국, Poletto & Pollock(2004)가 가정하는 문장 외곽 구조 하에서 접속법 구문의 문체 도치 현상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가 앞으로의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본 논문의 도입 부분에서 우리는 문체 도치 현상을 보여주는 많은 구문들을 열거했다. 그런데 이 구문들 중 적지 않은 것들이 우리가 검토한 기존의 세 논문들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 구문들이 기존 논문들의 분석틀 안에서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 그래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본 논문의 마지막에서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Kayne & Pollock(1978), Kayne & Pollock(2001), Poletto & Pollock(2004)을 통하여 문체 도치 현상에 대한 새로운 많은 사실들이 발견됐으며 또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이론적 제안들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그 해답을 기다리는 문제들이 적지 않다.

## 참 고 문 헌

- 김영룡 역. 2001. 『지배결속이론과 최소주의』. 한국문화사.
- 박명관·장영준 역. 2001. 『최소주의 언어이론』. 한국문화사.
- 양동휘. 1995. 『수정 문법론』. 한국문화사.
- 이영훈. 1986. 『불어 의문문의 주어도치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기용 편저. 2005. 『최소주의의 최근 흐름』. 한국문화사.
- 홍용철. 2004. 『생성문법의 언어관과 원리-매개변인 이론』. 한국불어불문학회. pp.61-96.
- 原口庄輔 · 中村捷 편저. 강명윤 옮김. 1998. 『촘스키 언어학 사전』. 한신문화사.
- Adger, D. (2003). *Core Syntax - A Minimalist Approach*. Oxford University Press.
- Beninca', P., and Poletto. C. (1999). "Topic, Focus and V2: Defining the CP Sublayers." Unpublished ms., university of Padua. Also chapter 3 in this volume.
- Delaveau, A., and Kerleroux, F. (1985). *Problèmes et exercices de syntaxe français*. armand colin, pp.112-125.
- Grévisse, M. (1961). *Le bon usage*. Duclot. 7ème édition.
- \_\_\_\_\_ (1980). *Le bon usage*. Duclot. 11ème édition.
- Hulk, A., and Pollock, J.-Y. (2001). "Subject Positions in Romance and the Theory of Universal Grammar" in Hulk, A., and Pollock, J.-Y. (eds.) *Inversion in Romance and the Theory of Universal Gramm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3-19.

- Jones, M. A. (1996). *Foundations of French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tz, J. J., and Postal, P. (1964). *An Integrated Theory of Linguistic Descriptions*. Cambridge, Mass.: MIT Press.
- Kayne, R. S. (1972). "Subject Inversion in French Interrogatives.", In J. Casagrande & B. Saciuk (eds.), *Generative Studies in Romance Language*. Newbury House, Rowley, Mass., pp. 70-126.
- \_\_\_\_\_ (1973). "L'inversion du sujet dans les propositions interrogatives", in *Le Français moderne*, vol.41, pp.10-42.
- Kayne, R. S., and Pollock, J.-Y. (1978). "Stylistic Inversion, Successive Cyclicity and Move NP in French." in *Linguistic Inquiry* vol. 9, pp. 595-621.
- \_\_\_\_\_ (2001). "New Thoughts on Stylistic Inversion," in A. Hulk and J.-Y. Pollock (eds.) *Inversion in Romance and the Theory of Universal Gramm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107-162.
- Kupferman, L. (1983). "Syntaxe et conditions pragmatiques", (A propos de "Approaches to island phenomena" de A. Groussu). *Linguisticae Investigationes* 7/2, pp. 385-400.
- Le Bidois, R. (1939). *L'inversion du sujet dans la prose contemporaine*, Paris: Editions d'Artrey.
- Munaro, N., and Obenauer, H.-G. (1999). "Underspecified *wh*-Phrases in Pseudo-interrogatives." Unpublished ms., CNRS Paris-St. Denis / CNR Padua.
- Poletto, C. (2000). *The Higher Functional Field: Evidence from the*

*Northern Italian Dialec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oletto, C., and Pollock, J.-Y. (1999). "On the Left Periphery of Romance *Wh*-Questions." Talk delivered at the Workshop on the Cartography of Functional Projections, Pontignano, November 1999.

\_\_\_\_\_ (2004). "On the Left Periphery of Some Romance *Wh*-Questions." in L. Rizzi (eds.) *The Structure of CP and IP -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vol. 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251-296.

Reinhart, T. (1976). *The Syntactic Domain of Anaphora*. Doctoral dissertation, MIT.

Rizzi, L. (1990). *Relativized Minimality*. MIT Press, Cambridge, Mass.

\_\_\_\_\_ (1997). "The Fin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 in L. Haegeman (eds.) *Elements of Grammar - Handbook in Generative Syntax*. Kluwer Academic Publishers, pp. 281-337.

Tellier, C. (2003). *Éléments de syntaxe du français*. Gaëtan morin éditeur.

Terry, R.-M. (1970). *Contemporary French Interrogative Structures*, Montréal-Sherbrooke, Ed. Cosmos.

Wartburg, O. B. W. V. (1973). *Précis de syntaxe du français contemporain*. French & European Pubns, p. 159

# RÉSUMÉ

## Inversion stylistique en français

Jang So-Young

Département de langue et de littérature françaises

Cours de masteur

Université féminine de Sungshin

L'ordre des mots en français est dit SVO(sujet-verbe-objet). Cet ordre est inversé dans quelques occasions, dans l'interrogation, la phrase exclamative et le subjonctif etc.. Parmi ces phénomènes, on appelle inversion, le cas où le sujet se situe derrière le verbe.

En français, on retrouve trois types d'inversion selon le sujet.

- quand le sujet pronominal est suivi du verbe, on l'appelle l'inversion simple.
- quand le sujet nominal reste à sa place et le sujet pronominal correspondant est suivi du verbe, on l'appelle l'inversion complexe.
- quand le sujet nominal est situé dans la fin de la phrase, on l'appelle l'inversion stylistique.

Cette étude a pour but d'analyser l'inversion stylistique en français. A l'aide de recherches récentes, on a procédé à l'examen de ces phénomènes d'inversions stylistiques et on a résumé des questions théoriques.

Dans le deuxième chapitre, on a d'abord décrit les différences entre l'inversion stylistique et les autres inversions (l'inversion simple et l'inversion complexe). Et puis, on a caractérisé plusieurs structures qui permettent l'inversion stylistique. Par ailleurs, on a aussi examiné les principaux problèmes que soulève l'inversion stylistique. Les problèmes sont les suivants :

- Comment on peut satisfaire EPP dans la proposition de l'inversion stylistique?
- Pourquoi l'inversion stylistique en français est plus restrictive que dans les autres langues romanes?
- Où le sujet de la proposition de l'inversion stylistique se trouve-t-il structurellement? Il reste dans la position base, sinon il s'est déplacé à un autre endroit? S'il s'est déplacé, où est sa place transportée? Et quelle est la raison du déplacement?

Dans le troisième chapitre, on a observé trois recherches récentes qui sont associées au sujet de cette étude : Kayne & Pollock(1978), Kayne & Pollock(2001), Poletto & Pollock(2004). On les a résumés et on a vérifié les points forts et faibles de ces études. Au début, Kayne & Pollock(1978) ont proposé la règle suivante.

(2)  $qu_{-/+F} (que) NP X \rightarrow 1\ 2\ e\ 4\ 3$

1        2        3    4

La flèche de gauche montre les circonstances où l'inversion stylistique peut avoir lieu, et la droite présente le résultat de la règle appliquée. Mais en fin de compte, en remarquant que les environnements de la proposition de l'inversion stylistique et de la phrase impersonnelle sans "il" sont pareils, Kayne & Pollock insistent sur le fait qu'on doive établir séparément la règle de l'inversion stylistique et le résultat de la règle.

(3) La règle de l'inversion stylistique : Déplacer NP

$$\text{NP X} \rightarrow \text{e } 2 \text{ } 1$$

$$1 \text{ } 2$$

(4) La contrainte sur le résultat que l'inversion stylistique est appliquée : contrainte sur le "trigger". Marquez comme agrammaticale toutes les phrases contenant une position sujet vide qui n'est pas précédée immédiatement par le trigger *qu-/+F(que)*. «Mark as ungrammatical any sentence containing an empty subject position not immediately preceded by the trigger 'wh/+F'(que)).»

Kayne & Pollock(2001) s'occupent de la place du sujet dans la proposition de l'inversion stylistique. Kayne & Pollock insistent sur le fait que le sujet se déplace d'abord à gauche d'IP et après, l'IP restant se déplace aussi à gauche de la proposition à travers le sujet déjà déplacé. C'est-à-dire, le sujet inversé se situe structurellement à l'extérieur d'IP. Ensuite, Kyane & Pollock établissent la condition suivante au lieu de la contrainte sur le "trigger" : La montée du sujet de l'inversion stylistique

ne peut pas cibler Spec-FP qui se trouve juste au-dessus d'IP. «SI subject raising cannot target a Spec-FP immediately above IP.»

Poletto & Pollock(2004) discute sur le point d'arrivée et les raisons de plusieurs déplacements proposés par Kayne & Pollock(2001). Poletto & Pollock font une proposition sur la structure périphérique comme la suite.

(5) La structure périphérique

[<sub>Op2P</sub> Op2 [<sub>ForceP</sub> Force [<sub>GroundP</sub> Ground [<sub>TopicP</sub> Topic [<sub>Op1P</sub> Op1 IP]]]]]

Poletto & Pollock(2004) explique la raison du mouvement de chaque élément par la théorie de vérification. Tout d'abord, après la fusion d'IP et Op1P, le syntagme *qu-* se déplace dans Spec-Op1P. Ensuite, le sujet qui est le topique dans Spec-TopP pour que le trait [+topique] soit vérifié. Ce la fait, l'IP restant qui est un élément présupposé, effectue un mouvement dans Spec-GroundP, pour vérifier [+ground]. Et le syntagme *qu-* se déplace dans Spec-ForceP pour vérifier le trait [+force] qui détermine le type de la proposition. Enfin, il effectue une fois de plus un mouvement dans Spec-Op2P, afin de vérifier un autre trait par rapport à l'interrogation. *Bref, cette thèse suppose que la dérivation de la construction d'inversion stylistique repose sur cinq étapes: le premier déplacement du pronom interrogatif dans Op1P => le déplacement du sujet dans TopP => le déplacement de l'IP restant dans GroundP => le deuxième déplacement du pronom interrogatif dans ForceP => le troisième déplacement du pronom interrogatif dans Op2P.*

Dans le chapitre 4.1., nous avons relevé les problèmes des trois recherches examinées dans le troisième chapitre. Le plus grand problème

de Kayne & Pollock(1978) est de seulement décrire le phénomène d'inversion stylistique sans jamais l'expliquer. C'est par le biais de la contrainte sur le "trigger" que ce mémoire appréhende que le "trigger" de l'inversion stylistique est le syntagme interrogatif dans le complémenteur et le trait subjonctif +F. Mais ces deux triggers n'ayant pas de points communs, Kayne & Pollock(1978) n'arrivent pas à expliquer pourquoi ils doivent fonctionner comme "trigger" de l'inversion stylistique.

Selon Kayne & Pollock(2001), ce problème se résout en établissant la condition selon laquelle la montée du sujet de l'inversion stylistique ne peut pas cibler Spec-FP qui se positionne juste au-dessus d'IP. A notre avis, cette solution constituera un tournant important dans l'étude du phénomène de l'inversion stylistique. Car elle permet de capter le point commun de l'interrogative partielle et le subjonctif. En effet, pour ces deux constructions, la montée du sujet inversé se fait toujours en traversant un constituant. Et la proposition détaillée à propos de la position structurale du sujet inversé, elle est aussi très convaincante. Malgré tous ses mérites, cette thèse comporte aussi un certain nombre de problèmes. Le principal étant celui associé aux déplacements. Selon les auteurs, pour dériver l'inversion stylistique, on doit avoir quatre opérations de déplacement suivantes : le premier déplacement du pronom interrogatif => la montée du sujet => le déplacement de l'IP restant => le second déplacement du pronom interrogatif. En fonctionnant de cette manière, quatre déplacements doivent se faire dans le domaine périphérique. Mais il n'est pas fait mention de la localisation détaillée des quatres. De même, il ne propose pas d'explications sur les raisons du fonctionnement de ce mouvement.

A propos des problèmes sur le mouvement, Poletto & Pollock(2004) les

réglent par la structure périphérique et la vérification de trait. C'est-à-dire, les mouvements pour la dérivation de la phrase de l'inversion stylistique ont lieu pour vérifier les traits associés aux éléments de la périphérie de la phrase. Cette hypothèse pourra contribuer remarquablement à la recherche dans l'avenir sur l'inversion stylistique parce qu'elle présente la description sur la structure périphérique qui a été un peu étudiée, avant. Mais dans ce mémoire, Poletto & Pollock n'examinent que l'inversion stylistique dans l'interrogation. Il faut étudier comment on peut l'analyser dans les autres constructions, telles que le subjonctif, etc.. Donc, il reste encore des questions en suspens, et puis on devra savoir comment le phénomène d'inversion stylistique peut être analysé dans ces autres structures.

Le chapitre 4.2. est consacré à l'analyse d'autres constructions non étudiées par les recherches antérieures, en prenant en compte les problèmes déjà cités ci-dessus. A savoir, les phénomènes d'inversion stylistique qui apparaissent dans les phrases avec les compléments circonstanciels, dans les phrases clivées, et dans les propositions incises. Ces phénomènes ont été examinés au regard des travaux de Kayne & Pollock(2001) et Poletto & Pollock(2004).

Enfin, nous concluons cette étude dans le cinquième chapitre.